통사편

반만년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인 관광진흥 반세기

- **제 1 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 한국관광공사 탄생
- **제 2 부** 세계를 향해 한국 관광의 문을 열다
  – 한국을 찾는 세계, 세계를 맞는 관광공사
- **제 3 부** 한국관광공사 시대의 개막, 새로운 '관광 한국'의 서막
  – 사명 변경과 도약의 기반 구축
- **제 4 부** 21세기 관광 대국의 꿈을 현실로
  – 경영혁신과 관광산업 진입을 위한 몸부림
- **제 5 부** 큰 역경을 딛고 새 역사를 쓰다
  – 외환위기 극복과 관광산업의 부흥
- **제 6 부** '매력있는 관광 한국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을 향해
  – 창립 50주년과 새로운 비전

제1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한국관광공사 탄생

제 1 장 ---------- 관광의 뿌리와 관광의 태동

제 2 장 ---------- 한국 관광 역사의 주역, 관광공사 탄생

제1장

관광의 뿌리와 관광의 태동

제1절

한국관광의 뿌리, 조상들의 그 값진 유산

고려 말기에 '관광'의 개념 정립

이제 우리나라가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것에 대해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는 국민이 대부분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일로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폐허와 가난의 질곡을 경험했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관광 대국이 될 수 있는 문화적 지리적 가능성을 이미 오래 전부터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근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고려 말과 조선 초부터 '관광'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고, 3국을 오가는 관광객 수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관광(觀光)'이란 말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곳의 풍경·풍습·문물 따위를 구경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고려 말기에 중국을 다녀온 학자나 사신들이 남긴 기행문을 〈관광록〉으로 부르고, 조선 초기 학자인 서거정이 자신의 책 〈사가집(四佳集)〉에서 '관광'이라는 말을 '상국(上國)의 문물을 본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보아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시기가 관광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점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제껏 우리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관광이 정착된 시기는 개항 이후 외국 문물의 유입 당시라고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고려 말부터 관광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어 있었고 실제로 적지 않은 관광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관광 역사의 시점을 최소한 600년 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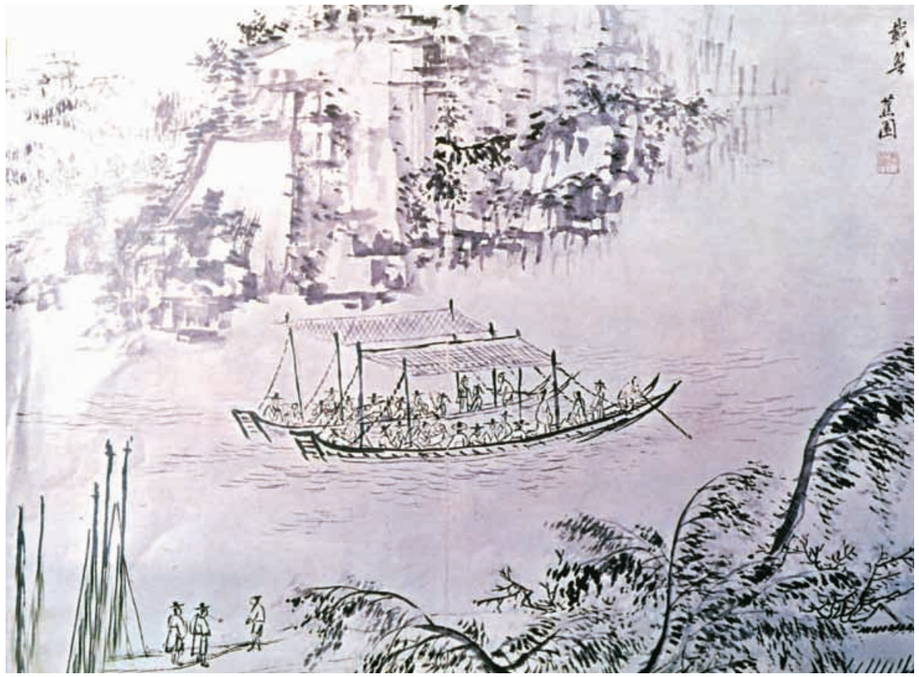
대한민국 관광 역사의 시점을 최소한 600년 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곳곳이 천혜의 관광지인 금수강산

●

성리학이 번성했던 조선시대에는 외부적으로 성리학의 본산인 중국을 관광하는 일과 함께 내부적으로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 수양을 하는 관광이 성행했다. 유교적 세계관에 따라 전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선비들이 주로 찾았던 산은 백두산·금강산·지리산·오대산·묘향산·속리산·가야산·청량산 등으로서,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산들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들 명산에 올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거나 시를 지었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경우에는 국토에 대한 애정을 기르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을 키웠다.

명산 중의 으뜸은 역시 금강산이었다. 조선 후기 문인인 강세광은 자신의 글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서 "장사꾼, 품팔이, 시골 노파들까지도 마치 금강산을 갔다 오지 않으면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표현했을 정도였다.



김석신의 가고중류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구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 사람들에게 서울 나들이는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발달한 시기에도 그랬으니, 조선시대에는 지방 평민들에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을 정도였다. 임금이 사는 한성은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순위였다. 지방의 선비들이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한성으로 가는 일을 아예 '관광'이라고 부른 것은 특히 흥미롭다. 조선시대에 과거제가 발달하면서 과거 지망생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들이 한성을 오가는 일 자체가 우리 국토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비록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한때 한성 이외 지역의 선비들이 성균관이나 지방 향교를 관광하도록 하자는 '관광법' 시행이 논의된 적도 있었다.

온천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로서, 피부병이나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관광의 형태를 겸하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남북의 연결지역인 수안보온천은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었다.

조선 초기에 주로 고위 관료나 사대부에 한정되었던 관광은 조선 중기 이후 중인 계층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관광객이 증가하다 보니 때로 풍속을 해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어서, 19세기 초반에 와서는 관광지에서의 남녀 애정 행각, 과음, 소나무 벌목 등을 금하는 행정 규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금수강산을 돌아보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숙소는 조선 초기의 경우 주로 관영 숙소인 '원(院)'이었다. 정부에 의해 체계화된 이 원은 일종의 국영여관의 성격이었는데, 잇단 전쟁과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조선 중기부터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바로 '주막(酒幕)'이었다. 주막은 영업에 유리한 교차로 주변이나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문을 열었고, 이런 입지의 특성 때문에 주막 근처에는 크고 작은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새술막', '주막거리', '주막동'과 같은 지명이 상당수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부터 주막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이용한 가장 흔한 형태의 숙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의 명승지를 관광하는 일은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나 광복 이후

에도 여전히 소수의 특권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도 어려운 일반 사람들은 단오절이나 유두날에 가까운 개천으로 가서 멱을 감고 바람을 쐬는 일이 가장 호사스런 나들이이자 관광이었다.

신윤복의 주유청강

이렇게 관광이 특권층에만 국한된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데도 이유가 있었지만 이동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주된 이유였다. 조선시대 주요 이동 수단은 말과 가마였지만 이 또한 극히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말이나 가마를 가지지 못한 부유층의 경우 하인이 업고 다니기도 했다. 조선시대 중요한 관용 교통수단은 '역(驛)'으로서 주요 도로에는 역을 두고 역마(役馬)를 배치하여 공무 여행자에게 제공했다. 또 요로마다 '원'을 두었는데, 이 역시 공무에 국한된 교통 및 숙박시설이라 일반 백성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시대의 외국인, 금수강산과 공연예술문화에 취하다

●

개방적인 고려시대와 달리 폐쇄정책을 폈던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교류를 이어간 나라는 중국·일본·유구·여진 등 네 나라가 거의 전부였고 방문객은 대부분 사신들이었다. 사신은 한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국빈의 예우를 받았고 따라서 이들의 방문 일정 가운데는 반드시 관광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사행관광(使行觀光)'은 영접 관료나 통역관을 포함하는 단체관광의 성격이었고, 가장 규모가 컸던 중국 사신의 관광객 규모는 100명을 넘었다.

주로 압록강을 건너 입국한 사신들은 우선 한성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인 평양 관광에 나섰다. 특히 연광정(練光亭)은 천하의 절경으로 꼽혔고, 기녀들의 환영 공연도 감탄을 자아냈다. 대동강을 건너 평안도 중화군에 이르면 미리 경선을 거쳐 선발된 최고의 궁수들이 선보이는 활쏘기를 관람했다. 이어 황해도 개성에서 광대들의 백희(百戲) 공연을 관람한 사신들은 송수산의 풍광에 취해 수많은 비석에 글을 새겨 남겼다.

마침내 사신 일행이 숭례문을 거쳐 도성에 들어오면 대대적인 환영행사가 열렸는데, 이 행사는 모든 한성 사람들의 큰 구경거리가 되어 도성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다. 특히 대규모 이동식 무대인 오산붕을 설치하여 춤과 기예를 선보였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공연이 송파산대놀이와 양주별산대놀이다.

이후 며칠에 걸친 공식 업무가 끝나면 한성 인근의 사찰과 명승지를 관광했다. 그 가운데 한강 유람은 반드시 포함되는 필수 코스였다. 사신들은 용산에서 정자선(亭子船)을 타고 한강을 유람했으며, 특히 지금의 절두산이자 당시 양화나루터에 있던 가을두(加乙頭)와 잠두봉(蠶頭峰)은 사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강의 절경이었다.

조선시대 국빈관광에도 일종의 '옵션 관광'이 있었다. 그 가운데 최고의 관광상품은 '관금강(觀金剛)', '관화(觀火)', '관사(觀射)'였다.

금강산 열풍은 비단 내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금강산이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인도에까지 명산으로 소문이 나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사신이라면 반드시 금강산 관광을 일정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금강산 관광을 뜻하는 '관금강'이 으뜸 중의 으뜸 상품인 것이 바로 그런 공통된 관광 취향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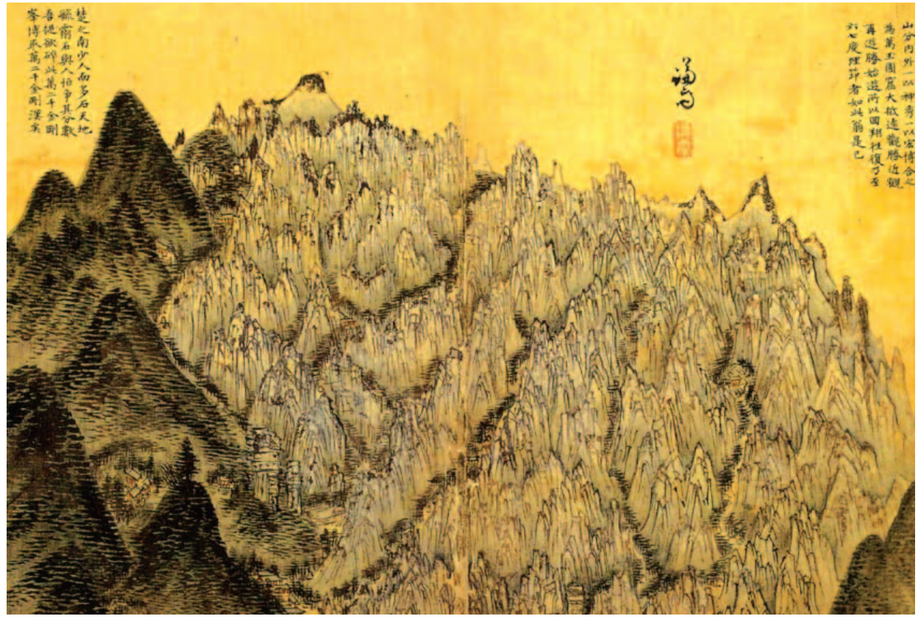
'관화'는 불꽃놀이 관광으로서 외국 사신이 올 때만 특별히 행해졌다. 화약을 땅에 묻어 불기둥을 만들거나 장대에 매달아 터지게 하는 여러 형태가 있었으며, 특히 15세기까지 화약을 구경하지

국보 제1호 숭례문

못했던 일본 사신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있는 상품이었다. 마지막으로 '관사'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재주를 구경하는 일이었으며, '관화'와 '관사'는 영빈관 성격인 모화관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관광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이미 고려시대부터였고 조선시대에는 타국에 못지않은 관광산업이 태동하고 있었다. 특히 공연예술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어서, 타국보다 조선으로 파견되기를 원하는 사신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날의 한류(韓流)는 그렇게 수백 년 전에 발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값진 유산이자 관광대국 대한민국의 오랜 잠재력이었다.



정선의 금강산 전도

제2절

개항의 진통 속에 새로운 관광산업의 씨를 뿌리다

철도교통의 발달과 숙박시설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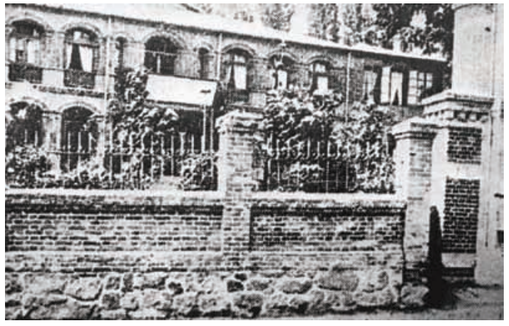
●

우리나라가 세계에 조심스럽게 문을 연 것은 굴욕적인 과정을 통해서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쇄국정책을 접고 일찍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1875년 운양호사건을 일으켜 이듬해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부산항에 이어 원산항과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서구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서구 문명이 일방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입국도 점차 증가했고,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개항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서구식 숙박시설이

인천에 세워진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1888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때 외국인 방문객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일본·중국·러시아 등 그들의 국적은 다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손탁호텔(1902년)

서울과 인접한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자 1888년 인천 중앙동 차이나타운 인근에 대불호텔이 건립되었다. 이 호텔은 벽돌식 건물로 침대 객실 11개와 다다미 240개를 갖추고 있었다. 이전까지 '주막' 형태로만 존재하던 조선의 숙박시설 역사를 바꾼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었다. 이 최초의 호텔이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문을 연 것은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육로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인천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울로 가기 전 인천에서 숙박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에 들어선 최초의 서구식 호텔은 1902년 손탁(Sontag, 孫鐸)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독일 여성이 중구 정동에 세운 손탁호텔이었다. 당시 호텔 규모는 1184평이었으며 25개 객실을 갖춘 2층 건물이었다. 이 호텔은 서구문화를 수입하는 창구 역할을 했고, 최초로 프랑스 요리를 제공하는 등 당시 정부고관과 외교사절의 사교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일본·중국·러시아 등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방문객의 국적이 다양했던 상황은 1910년 일본의 조선 강제합병 이후 크게 달라졌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일본인 일색으로 변했고, 개항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외국인 숙박시설은 사실상 일본인을 위한 시설이 되었다.

개화기에는 마차가 등장하였고,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크게 내어 '신작로(新作路)'라고 불렀다. 그 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근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899년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을 시작으로 1905년 서울~부산 간 경부선, 1906년 서울~신의주 간 경의선이 연이어 개통되면서 외국인 숙박시설은 항구 이외에 서울과 전국 주요 철도역 부근으로 확산되었다. '철도호텔'의 등장이 바로 그것으로서, 1912년 경부선 출발지인 부산에 최초의 철도호텔인 부산철도호텔이, 경의선 종점인 신의주에 신의주철도호텔이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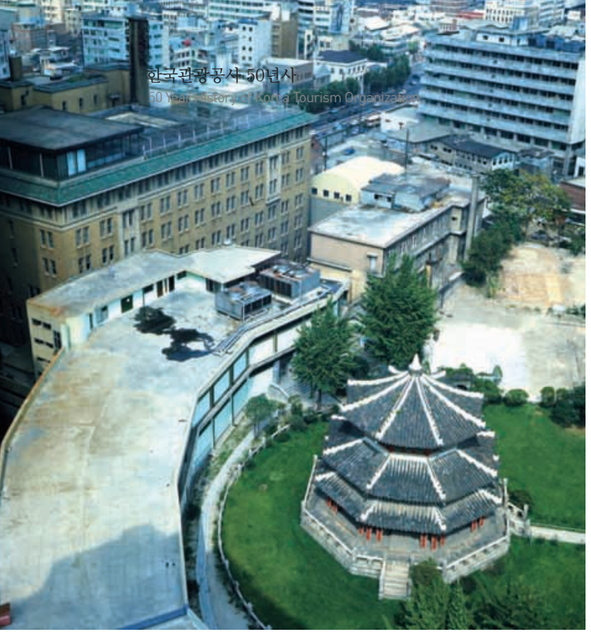
이어 1914년 조선철도국에 의해 설립된 중구 소공동의 조선호텔은 실질적인 최초의 근대식 호텔로서, 처음으로 회의 장소로 이용된 교류의 장이었다. 1915년에는 외금강산장이, 1918년에는 내금강산장이 금강산 지역에 들어서면서 호텔과 관광이 본격적으로 연계되는 양상을 보였고, 1920년 사설 철도회사인 경남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세워진 신정관(온양온천관광호텔)과 1922년 평양철도호텔이 각각 개관했다.

'여행'과 '관광'의 씨를 뿌리다

철도교통과 숙박시설의 발달은 우리나라에 '여행'과 '관광'의 씨앗을 뿌리는 자연스러운 여건이었다. 일본철도원이 일본 내에 설립한 국제여행사인 JTB(Japan Tourist Bureau) 조선지부(경성사무소)가 1915년 문을 열었다. 당초 주된 사업은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업이었지만, 이후 여행안내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 아래 설립된 회사였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행사로 기록된다. JTB 조선지부는 철도승차권 판매를 대행하면서 영업망을 확장,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 안내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해 여행안내 사업을 벌였다. 특히 철도를 이용해 조선을 거쳐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통과 여객이 급증하자 이들을 위한 선전 간행물을 발간하기도 했다. 바닷길과 철길이 열린 데 이어 하늘길도 열렸다. 일본은 1916년 서울 여의도를 시작으로 대구·울산·평양·신의주·함흥·청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간이 비행장을 건설했고, 이를 계기로 각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운송이 시작되었다. 1929년 최초로 취항한 국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해 대구·서울·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 대운(현재의 여대)을 잇는 노선으로서, 일본교통공사가 대륙 진출을 위해 개설한 항로였다.

세계 2차대전의 광풍 속에 메말라간 관광산업

1930년대 들어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미약하나마 점차 저변을 넓혀갔다. 1930년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유람비행사업이 시작되어 항공기가 관광 목적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1933년에는 일본 민간관광단체인 경성관광협회가 설립되어 서울 일원



반도호텔과 반도조선아케이드(1963년)

반도호텔(1963년)

관광지를 소개하는 선전 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서울역에 안내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또 1936년 10월에는 조선항공사업사가 설립되어 서울과 전라북도 익산(구 이리)을 잇는 정기 항로를 개설하여 주 2회씩 운항했고, 이후 광주까지 노선을 연장했다.

1936년 착공하여 1938년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영업을 시작한 반도호텔은 우리나라 호텔 역사의 한 전환점이었다. 일본인 노구찌에 의해 국내 최초의 본격적 상용호텔로 개관한 반도호텔은 미국 호텔의 경영 방식을 도입한 가운데, 111개 객실을 보유하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한 당시 조선 최대의 시설 및 규모를 갖춘 호텔이었다. 비록 일본인과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었지만 8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반도호텔은 당시 서울의 명물이자 관광의 상징이기도 했다.

하지만 1939년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경성관광협회는 동아여행사로 이름을 바꾸고 일본군의 인력 수송을 돕는 기관으로 이용되었고, 조선항공사업사의 국내 항공노선도 즉시 폐쇄되었다. 육상이나 해상의 모든 교통도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일이 주된 목적이 되었으며, 관광은 고사하고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외세에 의한 강제 개항으로 시작되어 일제 식민지 정책 아래 조심스럽게 씨를 뿌린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태생 자체가 비극적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채 씨앗을 틔우지 못한 채 6·25전쟁의 광풍 속에 메말라가고 말았다.

제3절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관광산업의 뿌리

혼란 속에서도 관광산업의 새 밑그림을 그리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교통국 운수과 여객계에 여관담당 및 선전담당 조직이 설치되었다. 이 조직이 우리나라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행정기구였다. 그나마 미 군정 3년 동안 이루어진 관광행정업무는 온양온천호텔 직영, 서울역을 비롯한 3개 역 구내식당 및 열차식당 직영, 조선여행사에 대한 감독 업무 정도에 그쳤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는 교통부에서 교통과 관광행정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49년부터 그동안 미 군정이 관리하고 사용하던 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했다. 1952년 7월에는 교통부 관리국 총무과에 관광계가 신설되었으며, 1954년에 육운국 소속의 관광과(초대 과장 윤영구)로 승격되었다. 신설 당시 관광계는 그동안 여관담당이 관장하고 있던 철도호텔과 역 구내식당 및 열차식당 직영업무를 담당했으며, 이외에도 1953년 11월에 재발족된 대한여행사에 대한 지도 업무 등 관광 관련 모든 업무를 관장했다.

1957년에는 교통부가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세계관광기구)의 전신인 국제관설관광기구(IUOTO)에 가입하여 관광 부문에서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1958년 3월에는 각 부처에 분산된 관광 관련 행정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관광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해외공관을 통한 관광선전업무, 관광사업계획 수립, 숙박시설 개선 등의 안건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선전 간행물인 〈Welcome to Korea〉를 발간하여 해외에 배포했다.

대한여행사 출범과 한국호텔업협회 발족

일본이 패망하자 동아교통공사 경성지사에 근무하던 한국 직원들은 일본인들이 세운 여행사 JTB(Japan Tourist Bureau)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하여 1945년 10월 1일 조선여행사를 발족시켰다. 이듬해 주식회사로 개편한 조선여행사는 1948년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고, 1949년 4월 대한여행사로 회사 명칭을 변경했다.
1954년 항공권 대리판매 및 해외여행취급소를 설치하고 1955년 3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 인가를 얻어 항공권 판매업무도 시작했다. 또 1955년 아시아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에 가입하여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4차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같은 해 6월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위한 관광행사를 주관하는 등 초창기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여행사 종로영업소(1960년대)

한편 1950년대 후반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RAS 관광단'이 전국의 명소를 자주 관광했다. 'RAS'는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친목단체인 'Royal Asiatic Society'의 약칭으로서, RAS 한국지부가 회원들을 위해 마련한 관광행사라는 의미에서 'RAS 관광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58년부터 시작되어 1966년까지 주말과 휴일에 이루어진 이 관광행사는 봄에 벚꽃놀이부터 시작해서 가을의 단풍놀이까지 이어졌다.
광복과 함께 호텔 운영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36년 개관한 반도호텔은 광복 후 미군에게 접수되어 미 육군 제24사단 본부와 미국대사관으로 이용되다가 1952년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인계되었다. 교통부는 반도호텔 개관에 앞서 1953년 10월 운영요원 10명을 선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페어먼스(Fairmonth)·팰리스(Palace)·세인트프란시스(St.Francis) 등의 호텔에 파견해 연수교육을 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면적인 호텔 보수공사에 들어가 실내 장식을 미국인 디한(De-haan)에게, 내부 시설공사를 교통부 시설국 주관으로 육군 공병단에게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반도호텔이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54년 4월이었다. 개관 후 반도호텔은 호텔 이용자를 미국인과 주한 유엔군으로 제한하였으며, 초기에는 달러와 쿠폰을 받고 영업을 했다. 조선호텔 역시 1945년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서 패망하면서 미 군정청이 접수했다가 1948년 8월 교통부로 운영권이 이관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다시 운영을 하다가 1961년 3월 국방부에 의해 징발 해제되어 교통부가 직영하게 됐다.
한편 1959년에 교통부가 직영한 호텔은 서울에 있는 반도호텔과 지방의 온양·불국사·해운대·설악산·무등산·대구·서귀포·화진포 등 10개였다. 1959년에는 민간관광단체인 한국호텔업협회가 발족되었으며, 당시 협회에 가입한 민간호텔 수는 전국적으로 29개였다. 객실 수는 총 888실로서, 한 호텔 당 31실에 불과한 영세한 규모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항항공사인 대한국민항공사

대한항공공사와 승무원들

최초의 항공사 KNA와 항공해상운송시대의 개막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사는 1948년 10월에 설립된 대한국민항공사(KNA, Korean National Airlines)였다. 설립 당시 KNA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제주, 서울~옹진 노선에 취항했다. 하지만 탑승객이 적어 경영난과 적자 운영에 시달려야 했다.

1949년 9월 1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항공사인 팬암항공사가 시애틀~도쿄~서울을 연결하는 극동항공노선 취항을 시작했다. 외국항공사가 국내에 취항한 것은 이 노선이 최초였다. 이어 1952년 3월 1일 한국과 자유중국 간에 잠정 항공협정이 체결되자 중국민항공사가 5월부터 타이베이~도쿄~서울을 잇는 국제선을 개설하고 주 2회 취항했다. 1954년 7월 2일에는 한국과 영국이 잠정적인 항공협정을 체결하면서 KNA가 DC-4 기종을 서울~타이베이~홍콩 노선에 투입하여 운항했다.

아직 열악한 기술 수준에다 경험마저 부족했던 까닭에 항공사고도 적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적자도 문제였다. 1960년 이후에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대한국민항공사가 도산 위기를 맞게 되자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항공운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영항공사 설립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62년 3월 대한항공공사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항공사가 바로 대한항공공사였다.

이에 앞서 육상운송업체인 한진상사(대표 조중훈)는 1960년 8월에 교통부로부터 항공운수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세스나기 1대로 에어택시 영업을 시작했다. 이 에어택시가 의외로 좋은 반응을 보이자 그 해 11월에는 한국항공이라는 독립 기업을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1969년 설립된 대한항공의 뿌리였다.

해상운송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근세까지 범선이나 거룻배와 같은 무동력선을 일반적인 운송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나, 1900년경 동력선이 도입되면서 육지와 도서 간 운항이 훨씬 편리해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여객선은 경술국치 이후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부산과 시모노세키 간을 취항했던 부관연락선이었다. 그러나 광복 후에는 운항이 중단되어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까지 해상을 통한 교류가 중단되었다.

정부 수립 후에 해운당국은 미 군정청으로부터 불하 받은 600톤급 미해군 수송선 6척을 여객선으로 개조하여 남해안에 취항시켰다. 최초의 디젤 엔진 동력선의 등장이었다. 이때 해운 당국은 이들 여객선을 6개 주요 연안항로에 투입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고, 이른바 무지개항로(부산~목포, 부산~군산, 부산~통영, 부산~울릉도, 부산~제주, 인천~옹진)를 개설하여 새로운 해상운송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적자 운영 끝에 부산~여수, 부산~제주, 제주~목포 항로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부관페리호

제2장

한국 관광 역사의 주역, 관광공사 탄생

제1절

정부의 관광진흥시책과 국제관광공사 창립

한국관광공사 50년 역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국제관광공사법 제정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1960년대 초에 들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관광진흥시책에 힘입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시행한 것이 결정적인 밑거름이었다.

일련의 관광진흥시책에 따라 정부는 1961년 교통부 관광과를 관광공로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같은 해 8월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공포했다. 이 관광사업진흥법이 관광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로 기록된다. 이듬해인 1962년에는 관광사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되었다.

이런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가는 가운데 1962년 2월 6일 정부가 국제관광공사법을 성안(成案)하여 3월 14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 이 법안은 4월 18일 다시 정부에 이송된 후 4월 24일 법률 제1060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국제관광공사는 바로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으로서, 마침내 한국관광공사 50년 역사의 기초가 마련되는 순간이었다.

국제관광공사법 제안의 배경에는 그동안 교통부가 직영하던 호텔 등 영리업체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빈곤으로 투자가 부진하던 관광 분야에 정부가 앞서 투자하여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함으로써 관광 외화수입을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국제관광공사법 제안의 배경에는 영리업체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ISSUE 01.

공사법 제정과 국제관광공사 창립

1960년대 초에 들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관광진흥시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1962년 4월 18일 국제관광공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두 달만인 6월 26일 현 한국관광공사의 **뿌리**이자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주도**할 실질적인 **최초의** 정부 산하 기구인 **국제관광공사**가 탄생했다.

▲ 창립초기 공사 사무실이 있었던 반도호텔

한국 관광산업을 이끌 주역, 국제관광공사 설립

국제관광공사법은 총칙과 함께 주식·임원·업무·회계·사채·벌칙·보칙 및 부칙 등 8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부칙 제2항에는 '교통부장관은 공사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정관의 작성, 기타 공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 항에 따라 1962년 4월 24일 공사법 발효와 함께 국제관광공사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공사 설립위원회는 당시 박정구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송정범·정인환·김봉관·옥조남·최명진·임병주·김병식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가진 것은 공사법 제정 다음 날인 1962년 4월 25일이었으며, 이 날 서울역 구내식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사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같은 해 4월 30일에는 신두영 국제관광공사 초대 사장이 임명되어 5월 5일자로 설립위원에 추가 임명되었으며, 5월 7일에는 설립위원회 제2차 회의가 산업은행에서 개최되었다. 또 5월 12일에는 김병식 부사장이 임명되었다가 6월 21일 김 부사장이 교통부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박정구 전 교통부차관이 공사 부사장으로 교체되었다. 이로써 국제관광공사 초대 경영체제가 구축되었다.

1962년 6월 4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와 6월 20일 반도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공사의 정관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1차 납입자본금 5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했다.

국제관광공사 창립총회가 열린 것은 공사법 제정 이후 두 달만인 1962년 6월 23일이었다. 이날 설립위원회는 반도호텔에서 제5차 공사 설립위원회 회의 겸 공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창립총회 개회 선언과 동시에 설립위원회를 해체하였으며, 오인순·윤석균·최준봉 이사와 김태진 감사를 선임했다. 국제관광공사는 창립총회 개최와 더불어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03번지 고려빌딩 3층에 임시 사무실을 개설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공사의 영문 명칭은 'Korea Tourist Service'로 정해졌다.

설립 당시 발행된 공사 주식

이어 다음 날인 6월 26일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주도할 실질적인 최초의 정부 산하 기구인 국제관광공사가 탄생했다. 이날이 바로 한국관광공사의 창립기념일이다.

조직 및 업무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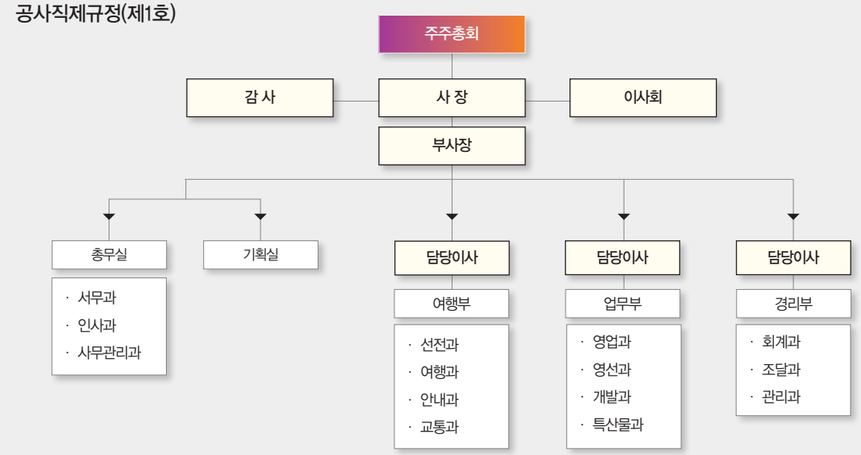
●

관광산업 진흥과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의욕적인 목적으로 출발한 공사였지만 관광산업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우선 전체 직원 수가 10여 명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당시 입사한 창립요원들은 직제가 마련되지 않아 보직을 받기 전까지 국제관광공사 설립위원회의 서기로 근무했다. 또 정부 사업체 인수에 따른 법적 절차,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방침, 보수규정 등도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잠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다.
하지만 1962년 7월 4일 제4회 이사회를 거쳐 공사 최초의 직제가 확정되면서 조직 체계 구축과 인원 확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정부 사업체의 인수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최초의 직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편성되었다.

1. 본사에는 실·부 및 과를 둔다.
2. 실·부장은 당분간 이사가 겸임한다.
3. 실·부에는 지휘 감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서에 3~4개의 과를 둔다.
4. 필요에 따라 지사 및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5. 본사는 각 사업소를 지휘 감독하여 그 업무를 통할(統轄)할 수 있도록 한다.
6. 각 실·부의 업무량은 가급적 균형 있게 배분한다.
7. 계획업무와 집행업무는 가급적 분리한다.

이 같은 원칙 아래 공사는 우선 본사에 총무실·기획실·업무부·여행부·경리부 등을 두었다. 1962년 8월 1일 당시 공사 임직원은 사장과 부사장, 이사 3명 및 감사 1명을 포함하여 111명의 사원과 10명의 준사원(타자수), 21명의 고용원(수위·운전기사·급사, 잡급직) 등 모두 148명이었다. 창립 직후 10여 명이었던 직원 수에 비하면 단시일 안에 괄목할 만한 충원을 이룬 것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정부와 공사의 의지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반영해주는 일이었다.
정부가 운영하던 관광사업체를 인수한 공사는 전국에 있는 사업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크게 관리업무(기획·예산)와 사업업무(영업소 감독, 심사분석, 시설투자)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했다. 또 대한여행사·운수사업소·특정외래품 판매소는 지역 및 구역별로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호텔의 경우 한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각 기능별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각 사업체(지사)에 기획심사과를 설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및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했다.
이처럼 빠른 시일 안에 조직 및 업무체계를 구축해가기는 했지만 창립 초기 공사의 조직은 관광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직과 기능직 직원이 많았다. 또 사업부와 관리부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 교육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각 사업체별로 산발적인 판촉활동을 수행했지만 체계적인

공사직제규정(제1호)



ISSUE 02.

공사 내 개발과 신설

1962년 7월 4일 **최초의 직제**가 **확정**되면서
조직체계 **구축**과 인원 확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업무부 내에 개발과를 **신설**하여 국내 **관광자원**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 자원개발계획, 생활환경 개선,
민간 관광사업체와의 협조 등 **관광산업 진흥**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 국제관광공사 업무반 제2기 수료기념(1994.8.22)

판촉 및 선전기능은 없었으며, 판촉비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웠다.
1962년 창립 당시의 직제 및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총무실
- 서무과 : 문서의 수발 및 보존, 직인 관수, 이사회, 행사, 용도품, 일숙직, 보안, 차량, 기타 실·부 및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인사과 : 사원의 임면, 이동, 복무, 급여, 교육, 보건, 고과, 상벌
- 사무관리과 : 편제, 규정, 감사, 사무관리, 안전관리

❖ 기획실
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의 수립, 총괄 및 심의, 예산의 종합 및 통제, 시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각종 통계의 종합, 도서실 운영, 등기, 소송, 원가계산

❖ 업무부
- 영업과 : 호텔의 운영감독,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영업, 기타 부 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영선과 : 시설의 관리 및 영선, 공사의 설계, 감독, 검사
- 개발과 : 국내 관광자원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 자원개발계획, 생활환경 개선, 민간 관광사업체와의 협조
- 특산물과 : 토산물의 연구발전, 제조, 판매, 특정외래품판매소의 운영

❖ 여행부
- 선전과 : 국내외 관광에 대한 선전, 기타 부 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여행과 : 여행 알선, 해외시장 조사, 외국 관광기관과의 제휴 및 연락
- 안내과 : 관광요원의 교육, 내·외국인 안내
- 교통과 : 차량운수업의 운영감독

❖ 경리부
- 회계과 : 각종 회계 장부의 작성,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차입금, 결산, 각종의 세금 및 공과금, 감가상각, 주식, 사채, 각종경리 업무, 재무제표 작성, 기타 부 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조달과 : 구매수속, 계약, 시장 및 가격조사, 불용품의 회수 및 처분
- 관리과 : 시설, 설비 및 기기 등의 재산관리, 물품보관 관리, 부동산증기, 보험, 공과, 감가상각, 주식, 사채, 각종 경리통계, 재무제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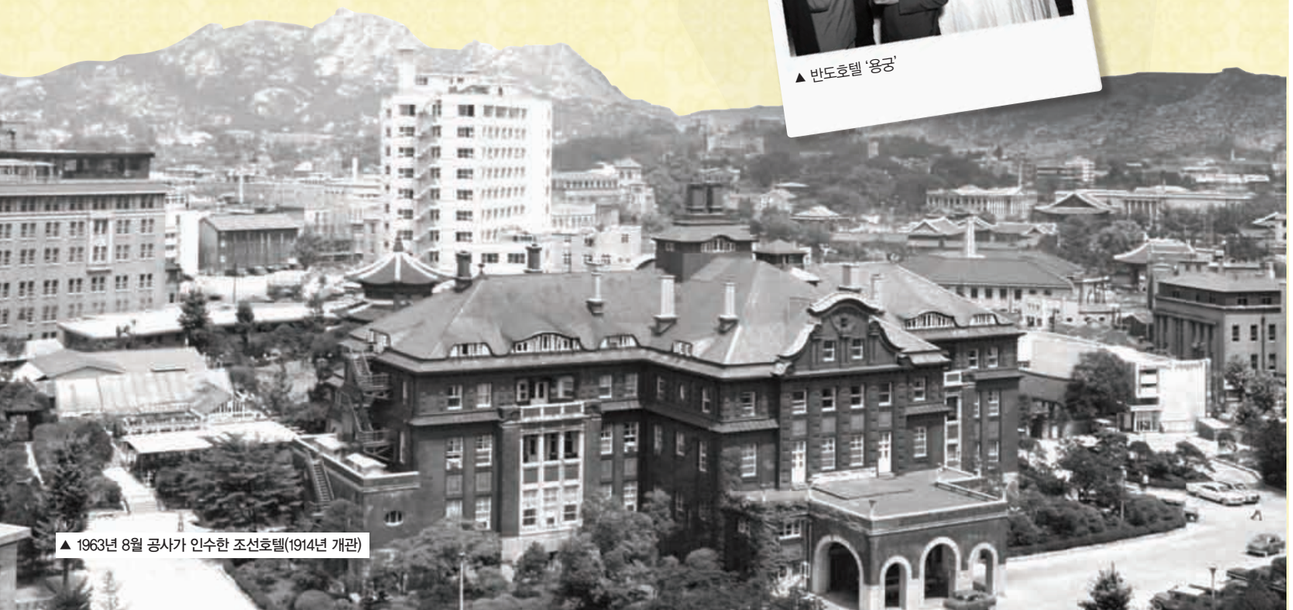
ISSUE 03.

조선호텔과 반도조선아케이드 운영

설립 **직후** 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1963년부터 국영업체를 **인수**하기 시작하여 대한여행사에 이어 **정부** 직영 관광호텔인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을 인수하고, **아리랑택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수익사업**을 본격화했다.

▲ 반도조선호텔 지역모형도

▲ 반도호텔 '용궁'


▲ 1963년 8월 공사가 인수한 조선호텔(1914년 개관)

제2절

주요 관광지와 교통 요충지의 호텔 인수 및 운영

시행착오와 자금난 속에 이루어진 관광산업 기반 조성

1963년 관광공로국이 관광국과 항공국으로 분리 개편되고 대한관광협회가 설립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관광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관광산업을 외화가득률이 높은 수출산업으로 인식한 결과였으며, 국제관광공사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창립 당시 공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비교적 명확했다. 우선 정부가 운영하던 호텔·특정외래품판매소·대한여행사를 인수·운영하여 흑자로 전환시키고 수익이 발생하면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여 이 땅에 관광산업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도 스스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영능력과 재원이 확보되는 단계에 이르면 점차 선별적으로 불하하여 민영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시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따랐다. 창립 당시 공사가 관광 분야의 전문인력이나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국내외 관광 여건 또한 채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어려움과 시행착오로 인해 공사는 설립 첫해인 1962년부터 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관광사업체들을 인수·운영하면서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차입금 규모도 급증하게 되었다.

타워호텔 기공식(1967.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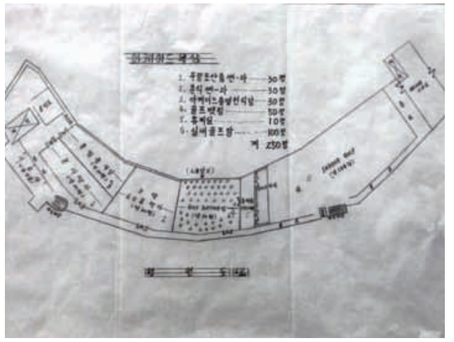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는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1963년부터 국영업체를 인수하기 시작하여 2월 1일 대한여행사, 4월 8일 워커힐, 6월 5일 운수사업소를 차례로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을 인수했다. 또 이듬해인 1964년 4월에는 울산호텔을 인수했으며, 1967년에는 타워호텔을 인수 운영했다.

1962년 창립 당시 관광자원개발 확충을 위해 업무부 아래 개발과를 신설하여 이후 전국 관광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전적지 개발사업, 보문관광단지 및 제주중문관광단지 등 공사가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적극적인 외화 획득의 현장, 반도조선호텔

반도호텔은 한국전쟁 이후 보수공사를 거쳐 1954년 4월 영업을 재개한 이후 교통부에서 공사로 소유권 및 경영권이 이관되었다. 공사는 1963년 8월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을 함께 인수하여 '반도조선호텔'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사 형태로 통합·운영했다. 반도조선호텔의 조직은 관리실·반도영업부·조선영업부로 구성되었으며 두 호텔의 종업원은 1964년 당시 481명이었다.

공사 김일환 총재와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반도조선아케이드 투시도(1971. 1. 19)

반도조선아케이드 내부(1976. 1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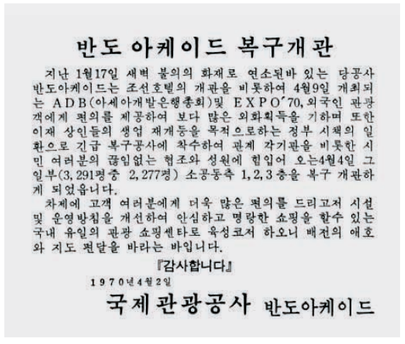
인수 당시 대지 1836평의 반도호텔은 연건평 5812평의 본관과 249평의 별관에 객실 111개를 두고 있었고, 객실·식당·사무실 임대·정비 등 4개 부서에 209명의 직원이 근무했다. 반도호텔의 주된 수입원은 객실 판매, 사무실 및 점포 임대, 영업장·식당·바·스카이라운지 운영 등이었는데, 1964년도 인수 당시 객실 가동률이 평균 90%로 같은 시기에 인수·운영한 조선호텔의 79%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외국인 이용률 역시 조선호텔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체 고객 중 외국인이 46%에 해당할 정도였으며, 비교적 시설 규모가 크고 사업 업종도 다양하여 이용객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반도호텔은 1964년 수익 2억 5,602만 원, 순익 5,486만 원을 올린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이로써 이후 1970년대 민영화 이전까지 공사의 으뜸가는 재원 조달 사업체로 자리매김했다. 공사는 호텔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정부 행사 출장 연회 참가, 스카이라운지와 공항식당 운영, 판문점 식당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호텔 건물 내 사업장을 임대하는 등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벌여 나갔다.

이 가운데 반도조선아케이드 사업이 특히 성공을 거둔 경우였다. 공사는 반도호텔 인수 후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1964년 8월 반도조선아케이드 건설에 착공, 이듬해 1월 23일 준공함으로써 상당한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두었다. 1965년 1월 23일 개관한 반도조선아케이드는 반도호텔과 조선호텔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이 두

반도·조선아케이드 全燒
잠든새 石油난로서 発火
舊正노린 商品모두타
거의 貴金屬등 奢侈品

반도조선아케이드 전소(동아일보, 1970. 1. 17)


반도 아케이드 복구개관

지난 1월17일 새벽 불의의 화재로 연소된바 있는 당공사 반도아케이드는 조선호텔의 개관을 비롯하여 4월9일 개최되는 ADB(아세아개발은행총회)및 EXPO'70,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외화획득을 기하며 또한 이재 상인들의 생업 재개등을 목적으로하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긴급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관계 관기관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오는4월4일 그 일부(3,291평중 2,277평) 소공동측 1,2,3층을 복구 개관하게 되었읍니다.

차제에 고객 여러분에게 더욱 많은 편의를 드리고저 시설 및 운영방침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명랑한 쇼핑을 할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 쇼핑센타로 육성코저 하오니 백전의 애호와 지도 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70년4월2일

국제관광공사 반도아케이드

반도조선아케이드 복구 개관(동아일보, 1970. 4. 3)

호텔을 연결하는 2층 연쇄상가 형태로 자리 잡았다. 당시 매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었던 이 아케이드는 연면적 2300여 평의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으며, 외래객을 위한 별다른 쇼핑센터가 없던 당시 외국인 쇼핑 관광객으로 연일 붐비는 등 외화 획득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처럼 반도조선아케이드는 개관 이후 판매수익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1960년대 후반 들어 서울시내에 유명 백화점들이 들어서자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을 증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층으로 지어졌던 본 건물에 3층과 4층 및 지하실을 증축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새로 단장하게 될 아케이드 건물은 지하 40평, 3층 675평, 4층 180평, 북측 47평으로서, 지하실은 발전실로 이용하고 3층은 소형점포, 4층은 대형점포와 휴게업소가 자리잡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1970년 준공을 앞두고 아케이드는 실화(失火)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 화재사건은 당시 공사는 물론 관련 업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단순한 사고의 차원을 넘어 국가기업의 손실이자 입주한 상인들의 재산 손실과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피해보상과 복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청와대에서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1970년 1월 24일 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제1차 청와대 회의가 열렸고, 2차 및 3차 회의를 통해 삼환기업이 공사측에 건물 피해복구를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 복구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전용호텔로 이용되었던 조선호텔은 1961년 3월 국방부에 의해 징발 해제되어 1963년 8월 1일 반도호텔과 함께 공사에 운영권이 이관되었다. 공사는 조선호텔을 인수하여 반도조선호텔지사로 발족시켜 운영하다가 1970년 조선호텔을 분리했다.

한편 1964년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일본의 해외관광 자유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등으로 국내외 관광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외래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 관광객 및 각종 국제행사를 수용할만한 호텔 및 회의장 시설이 여전히 부족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대규모 호텔 건설계획을 구상하고 미국의 레스코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최종 복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조선호텔 자리와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 자리였고, 이미 공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조선호텔 자리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공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대규모 호텔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건설자금의 확보와 외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독자적으로 기본설계와 투시도를 완성시킬 무렵 미국의 항공사인 아메리칸에어라인즈가 합작투자를 제의해 왔다. 그 후 양측은 8차에 걸친 의견조정을 거쳐 1967년 7월 24일 각각 55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하여 조선호텔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조선호텔 골조공사 준공식(1968. 11. 19)

ISSUE 04

▲ 워커힐 쇼(1986년)

▲ 워커힐호텔 본관(1963. 4. 8)

워커힐호텔 인수

1961년 정부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종합휴양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대단위** 관광지 조성에 착수했다. 이런 **목표** 아래 1962년 5월 워커힐호텔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때마침** 창립한 공사는 1963년 1월 1일 **워커힐호텔**을 인수한 후 4월 8일 **준공**을 이끌었다.

로 합의하고 1970년대 초부터 공동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미국의 최신 호텔 건축기술에 의해 건설된 조선호텔은 약 2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1970년 3월 17일 정식 개관했다. 조선호텔은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 체인호텔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건설되어 체인호텔에서 파견된 경영진과 경영기법에 의해 운영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호텔'이라는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 곳이기도 한 조선호텔은 개관 첫해인 1970년에 9억 1,463만 원의 수익과 1억 5,221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당시 서울시내에 대규모 호텔이 속속 들어서면서 조선호텔이 차지하고 있던 유리한 위치를 위협했지만, 주식과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수익은 평균 51%, 순익은 64%로 신장하여 투자업체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종합휴양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워커힐호텔

1960년대 초반 서울에는 반도호텔과 조선호텔 등이 있었으나 이들 호텔은 숙박과 연회, 행사기능을 수행했을 뿐 휴식과 휴양 공간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주한 미군의 대부분이 휴가를 나오면 일본으로 출국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 미군뿐 아니라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종합휴양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대단위 관광지 조성에 착수했다.
정부는 1961년 8월 25일 워커힐건설사무소를 설치하고 워커힐호텔을 법인으로 발족하면서 필요한 준비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1962년 1월 5일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때마침 창립한 공사는 1963년 1월 1일 공사가 진행 중이던 워커힐호텔을 인수한 후 4월 8일 준공을 이끌었다.
개관 당시 워커힐호텔은 대지 16만 5842평, 건물 43동, 구축물(정구장 외 18종), 기타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 내에는 카지

워커힐 쇼

노·슬롯머신·터키탕·기념품점·점포·매슈　하우스·빌라·승마장·사격장·장미화원 등의 임대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인수 당시 워커힐의 직원은 경영책임자인 지배인과 부지배인을 포함해 555명이었고, 조직은 호텔부·식당부·연예오락부 등의 사업부서와 심사실·총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수 첫해인 1963년 호텔의 전체 이용객 중 외국인은 74%로서, 외국인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이 외국인 이용률은 카지노와 같은 시설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작 객실 회전율은 고작 31%에 불과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 추진이 절실해지자 1967년 1월 1일 개발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개발위원회는 워커힐 스키장과 볼링장, 식물공원과 수족관 설치 등 수익 증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수익 면에 있어서의 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상황이 196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종합휴양업소로서의 워커힐호텔은 숙박, 식음료 판매, 연회, 레크리에이션, 게임 영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 외화 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1965년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슬롯머신·핀볼·빙고 등의 게임 영업을 도입했으나, 해외에서 처음 사업을 도입할 당시 물의를 빚은 데다 운영관리 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더 이상 발전하지는 못했다.

1973년 공사의 5개 지사(반도호텔·워커힐호텔·대한여행사·운수사업소·특정외래

온양관광호텔 (1960년)

불국사호텔을 민간 사업체에 불하(1966. 9. 1)

품판매소)의 총수익 가운데 워커힐호텔의 영업수익은 겨우 3.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채산성이 낮은 것은 방대한 부지 위에 수많은 건물과 시설이 흩어져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관광 수요가 저조하여 객실 판매와 식음료 판매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30동이 넘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고정관리비 부담이 높았던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였다. 결국 정부의 공사사업체 불하방침에 따라 1973년 (주)선경에 워커힐호텔을 매각했다.

그러나 워커힐호텔 운영경험은 호텔 경영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호텔 종사원 전문 인력 배출로 향후 관광호텔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지방 관광호텔 민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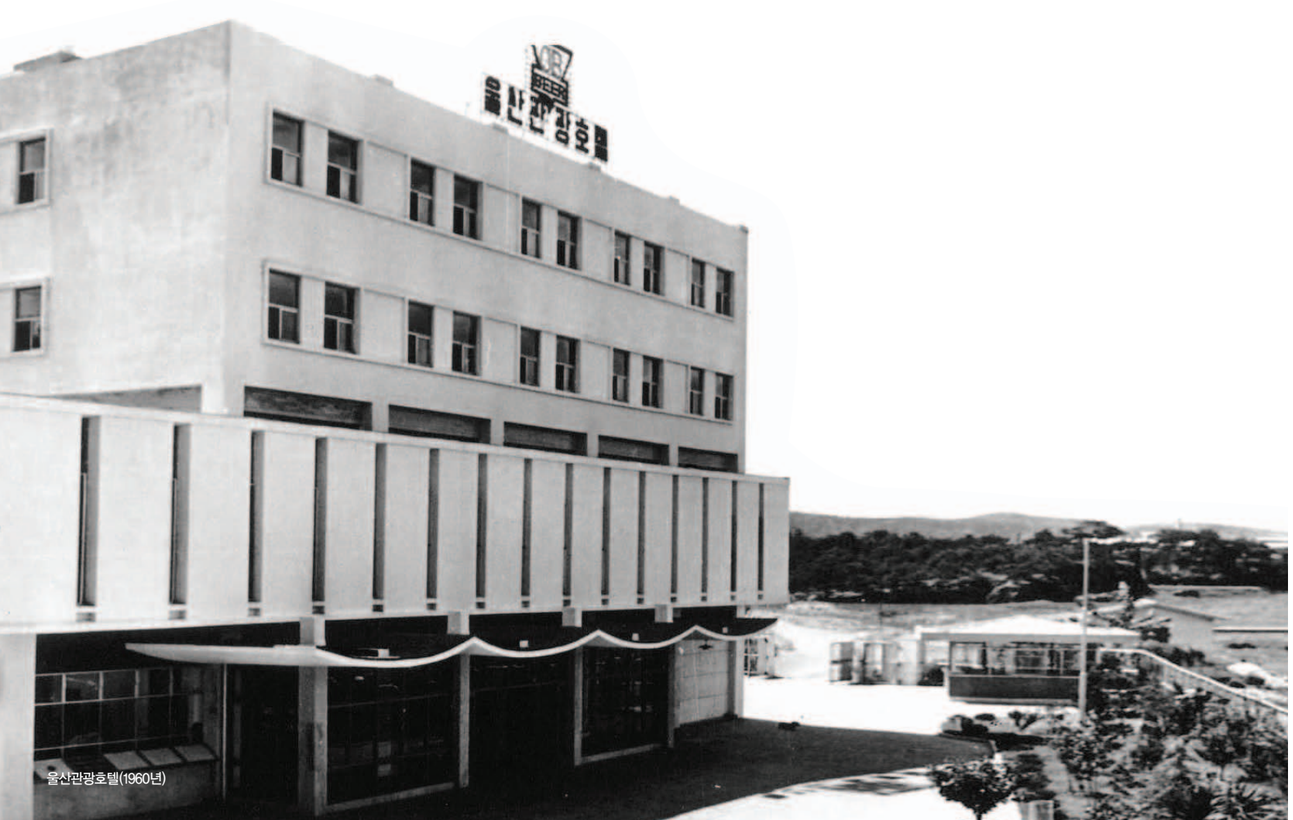
●

각 지방의 주요 관광지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 인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사는 1963년 1월 1일 온양·해운대·불국사·대구·서귀포·설악산·무등산호텔을 인수한 데 이어 1964년 4월 30일 울산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했다.

이들 호텔은 그 규모와 시설, 수용 능력이 오늘날의 고급 여관 수준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대부분의 호텔들은 객실에 욕조시설 대신 샤워장소가 있는 세면장을 구비한 정도였다. 여기에다 국가적으로 경제 개발과 소득증대사업에 착수하던 당시에 국내 관광인구가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1963년부터 공사가 운영하던 지방호텔의 객실 가동률은 47%로 호텔 운영의 손익 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아직 고속도로가 등장하지 않아 관광지 접근이 용이치 않았던 시기이므로 지방호텔의 흑자 반전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당시 지방호텔들이 레크리에이션·휴양·연회·칵테일바와 같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도 적자경영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

정부는 지방호텔의 외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나 외국 관광객의 지방여행이 저조하여 큰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당초 공사는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관광 발전의 기반을 다져놓은 다음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적자경영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불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1965년 대부분의 지방호텔을 불하했다.



울산관광호텔(1960년)

제3절

여행사업 및 운수사업을 통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

대한여행사 인수 – 여행알선업을 통한 관광사업 발전

공사는 창립 당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행알선업의 운영이 절대 불가결하므로 대한여행사의 사업을 인수, 종합적인 계획 하에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1962년 6월 28일과 7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한여행사 인수 조건 및 절차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때 대한여행사 직원이 일으킨 항공권 판매대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대한여행사가 팬암 및 노스웨스트 두 외국 항공사에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대한여행사의 항공권 위탁판매업 승인을

KTB 동대문 영업소 개소식 1

KTB 동대문 영업소 개소식 2

취소하였다. 결국 대한여행사는 1962년 11월 27일자로 항공권 위탁판매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는 우선 대외적으로 실추된 대한여행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를 청산하고 항공권 위탁판매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사는 교통부의 지시에 의해 1963년 1월 31일 대한여행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전에 대한여행사의 항공권 위탁판매사업 재개를 위해 제일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팬암과 노스웨스트항공사에 대한 미결제 대금을 납부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1963년 1월 21일 개최된 제2회 임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2월 1일 재단법인 대한여행사가 공사에 흡수되었다. 당시 대한여행사의 기구는 지배인을 중심으로 총무실·관광부·해외여행부 및 서울과 지방 14개 영업소가 있었으며, 자산은 국내 관광사업용 관광버스 15대, 소형버스 2대가 있었다. 인수 첫해 대한여행사의 영업실적은 국제항공권 판매 및 외국인 국내관광 알선수입 4만 5,843달러를 포함한 여행알선수익(수수료) 3,250만 6,000원, 순이익 594만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철도승차권 판매 수익이었다.

한편 1960년대 중반 노후화된 관광버스 교체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증차 문제가 대두되자 교통부는 외국관광객용 차량 도입과 이에 따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사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차량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요차량을 50대로, 연간 수입을 6,791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을 936만 원으로 각각 추정, 1965년 12월 13일 정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차량 구입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당초 상공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이유로 외제차 수입을 반대했지만, 1966년 9월 16일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산 관광용 차량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1967년 1월 25일 '관광용 차량 선택'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광버스 20대(일본 17대, 스웨덴 3대), 콜택시 30대(미국), 호텔 리무진 10대(미국), 세단 8대(미국) 등을 구입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웨덴산 Scania Vabis 버스를 보유하게 된 대한여행사는 1968년 2월 24일 오후 1시 '달리는 지상여객기'라는 이름으로 조선호텔을 출발하여 파고다공원~동대문~워커힐~조선호텔을 운행하는 시승회를 가졌다. 이어 파고다아케이드에 관광버스 예약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용산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던 관광버스 영업소에서도 예약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1968년 12월 12일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서울~인천 간 경인고속도로 개통에

Scania Vabis 버스를 보유하게 된 대한여행사(1968. 3. 3)

워커힐 대한여행사 광고(매일경제, 1966. 7. 16)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7. 7)

이어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고속버스가 도입, 운행되었다. 열차가 고속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장거리 여행에 불편을 겪었던 당시 새로 등장한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런 도로교통의 발전은 철도운수업에 큰 타격을 주어 철도여객이 줄고 고속버스 여객이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왔다. 주로 철도 승차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던 대한여행사의 지방 영업소는 승차권 판매수입이 저조해지자 마침내 운영에 압박을 받게 되었다. 1970년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방 영업소의 수입 감소는 곧 결손으로 이어져 1971년에는 대부분의 지방 영업소가 결손을 보였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가까이 인접해 있는 영업소는 철도 여객 감소로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1970~1971년 당시 지방 영업소장들은 공사에 보낸 영업보고서를 통해 철도 승차권 판매수입이 격감 또는 부진하여 영업소 유지가 어렵다면서 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영업실적이 저조한 영업소는 폐쇄하거나 인근 영업소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결손이 누적되어 대부분의 영업소를 폐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간 운수업체의 고속버스 영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많은 관광객이 신속한 신형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함에 따라 대한여행사의 관광버스 운행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71년 말 서울~원주 간 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공사는 정기고속버스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대한여행사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안은 국영기업체가 민간 운수업체와 경쟁할 수 없다는 정부의 견해와 재원 부족에 따라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여행사는 1972년 2월부터 전국 5개 지역을 연결하는 정기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관광코스 개발은 당초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이었지만 추후 내국인의 이용도 허용하기로 하여 첫해부터 의욕적인 판촉활동을 벌였다. 대한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관광버스 20대와 마이크로버스 4대를 투입하여 서울·부산·경주·부여·제주도 관광을 촉진시키는 것이 판촉활동의 주요 내용이었다. 공사가 관광진흥사업의 하나로 착수한 이 관광코스 개발은 훗날 국내 관광업계의 관광코스 개발에 밑거름이 되었다.

해외 관광시장 개척의 첫 걸음이 된 도쿄영업소

1964년 10월 29일 대한여행사는 일본 도쿄에 최초로 해외 영업소를 개설했다. 당시 도쿄영업소의 주된 업무는 외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알선과 항공권 판매였다. 1967년 12월에는 대한여행사 도쿄영업소장이 대한관광협회 중앙회 도쿄소장을 겸임함으로써 영업활동과 관광선전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낮아 도쿄영업소의 영업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1966년 이후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영업소 운영이 한계에 다다르자 1968년 9월 현지 교포와 대행 계약을 체결, 대행소 체제로 전환 운영하였다. 1972년 이 대행 계약이 만료되자 도쿄사무소는 IATA 대리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73년 4월 26일 IATA 영업권을 이관했으며 이로써 도쿄사무소의 업무는 오늘날과 같은 관광선전 활동과 시장개척으로 전환되었다.

1966년 8월 홍콩 현지 한국여행사인 홍콩유한공사가 대리점 설치를 제의해 왔다. 공사에서 그 제의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 1967년 12월 23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홍콩대리점 개설을 승인했다. 계약조건은 호텔예약 및 관광예약 업무, 항공권 판매, 한국관광 선전 및 관광정보 제공 업무 등이었다. 이어 대한여행사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1969년 2월 25일 일본통운여행사와 '일본인들의 한국관광 알선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정부투자기관사업체 민영화 방침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대한여행사(지사)를 민간기업체에 불하하여 국내여행업 발전을 기하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1973년 5월 1일 이사회에서 대한여행사 불하 방안을 의결했다. 불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국내에서 여행업에 다년간 경험이 있고 해외여행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유망한 업체에게 자산과 영업권을 인도한다.
2. 당시 여행 분야에 경험이 있는 세풍개발주식회사(대표 설국환)와 공사 간에 합작투자를 하여 새로운 법인체인 주식회사 대한여행사를 설립한다.
3. 영업에 필요로 하는 자산의 일부를 신설하는 대한여행사에 임대한다.
4. 신설 법인의 자본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1,000원권 주식 15만 주를 발행한다.

이로써 공사는 1963년 2월 1일 대한여행사를 인수·운영한 지 10년이 지난 1973년 6월 30일 대한여행사(지사)의 자산인 차량 27대를 비롯한 각종 자산과 권리를 매각·인도했다.

아리랑택시, 도심을 누비다

공사의 운수사업소는 1963년 6월 5일 워커힐 택시영업부가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아리랑택시'를 인수하여 발족된 기구로서, 같은 해 6월 25일 워커힐이 운영하던 시보래 택시 44대를 매입하여 영업을 시작했다. 인수 당시 운수사업소는 차량 220대와 건물 11동 그리고 약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산가치는 6,554만 원이었다. 또 소장을 중심으로 3개 과(영업과·서무과·경리과)와 1개의 정비공장, 454명의 직원이 있었다.

아리랑택시 창립 5주년 기념식(1967. 6. 13) 1

영업 첫해 운수사업소는 수익 5,888만 원, 순익 1,211만 원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1964년에는 수익 2억 5,511만 원, 순익 3,040만 원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정점으로 순이익이 감소하자 기존에

아리랑택시 창립 5주년 기념식(1967. 6. 13) 2

운수사업소의 아리랑택시

설치했던 8개 영업소(서울·워커힐·부평·문산·의정부·동두천·대구·부산) 중 수익성이 낮은 영업소를 폐쇄 또는 감차(減車)하여 1969년에는 원주·부평·의정부·문산·동두천 등 5개 영업소만 운영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1972년 운수사업소 수익은 5억 2,588만 원, 순익은 1,715만 원에 불과했으며, 공사 전체 수익의 15%를 점했다.

한편 공사는 1972년 3월 주한 외국인들이 사용하던 차량을 국내에서 처분할 때 이를 국내 수요자에게 알선하는 사업을 수행할 외제차량거래소(일명 외차거래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외제차량거래소 또한 실적이 저조하여 같은 해 8월에 폐쇄하고 운수사업소에 흡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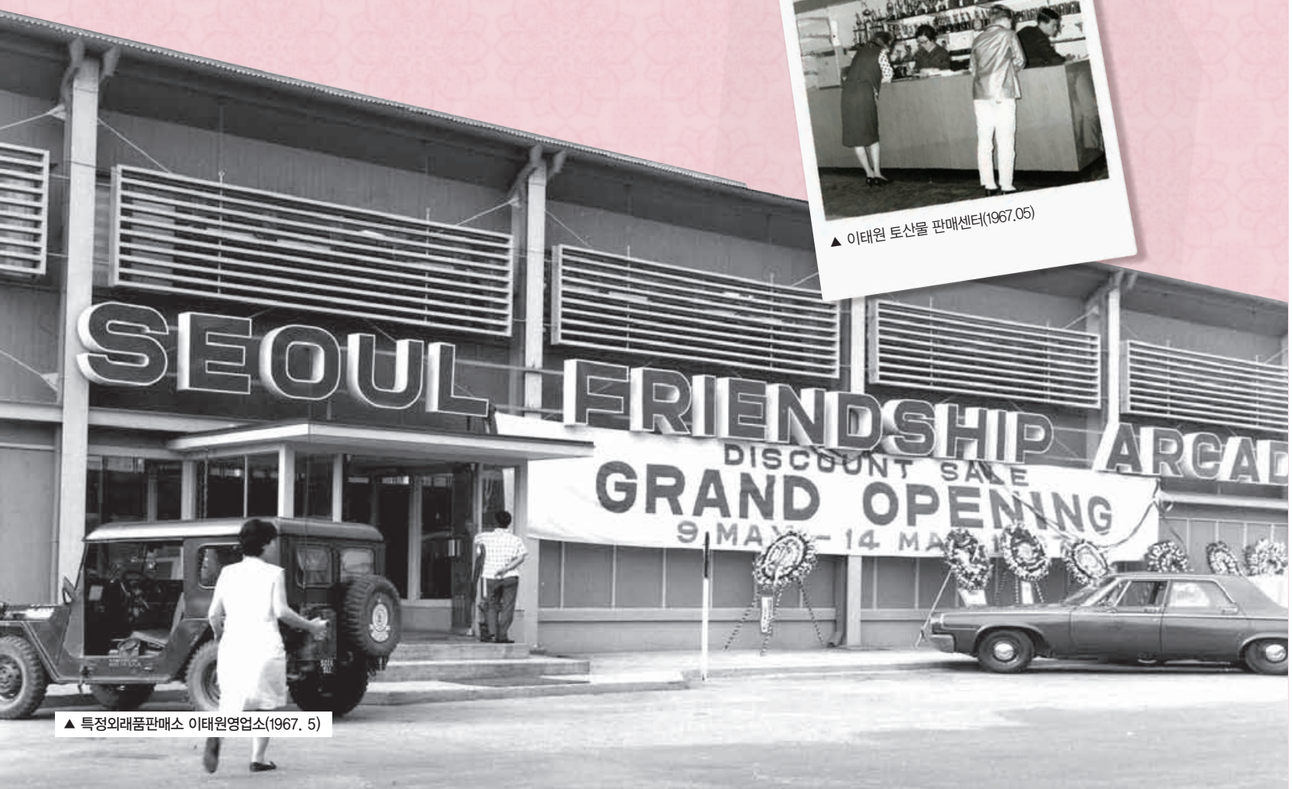
1973년 5월 31일 공사 이사회에서 운수사업소의 불하가 결정됐다. 운수사업소 불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 극동교역처에서 추천한 민간 운수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으며, 1973년 6월 27일 공사 이사회를 거쳐 주한미군 군납업체인 건양기업에 운수사업소의 자산 및 영업권이 불하됐다. 이후 건양기업은 유엔군과 그 가족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운송서비스를 이어갔고, 현재 (주)서울스마트택시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ISSUE 05.

특정외래품 판매(면세점)

1962년 11월 1일에는 그동안 교통부가 운영하던
특정외래품판매소 중앙영업소를 **인수**했다.
정부는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1961년 9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제정하여 주류와 화장품 등 특정 외국제품의 시중 판매를 **금지**시켰는데,
특정외래품판매소는 이때 주한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면세점**과 같은 형태였다.

▲ 이태원 토산물 판매센터(1967.05)



▲ 특정외래품판매소 이태원영업소(1967. 5)

제4절

다양한 수익사업의 가능성 모색

면세점의 모태, 특정외래품판매소 인수 및 운영

공사는 1962년 11월 1일 교통부가 운영하던 특정외래품판매소 중앙영업소를 인수했다. 정부는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1961년 9월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을 제정하여 주류와 화장품 등 특정 외국제품의 시중 판매를 금지시켰다. 특정외래품판매소는 이때 주한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면세점과 같은 형태였다.

인수 당시 1개 영업소로 출발한 특정외래품판매소는 주한 외국인의 상품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망을 확장했다. 1965년 1월 반도영업소를 시작으로 부산·이태원·김포·광주·대전·울산·제주영업소를 각각 개설했으며, 이어 1970년 7월에는 조선호텔 영업소가 문을 열었다. 이들 영업소는 주로 과자류·차·주스·육류·연초류·화장품류·주류 등 특정외래품을 취급했다.

특정외래품 판매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사의 가장 큰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1972년 공사 산하 5개 사업체의 영업수익 가운데 특정외래품판매소 수익은 전체 수익의 37.2%로 단연 우위를 차지했고, 대부분의 사업체가 민영화되던 1973년에는 전체 수익 가운데 무려 71.7%를 점하였다. 기존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도호텔과 워커힐호텔의 신장세가 둔화되고 대한여행사와 운수사업소 역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외래품 판매업의 수익 신장은 공사 사업 추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1972년 1월 1일 정부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개정하여 양주의 시중 판매를 허용하면서 양주의 수입 창구를 공사로 일원화했다. 양주의 수입 및 판매를 일원화함으로써 관세포탈을 막고 공사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1972년 2월 5일 수입양주 판매창구 개설

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여 양주판매 대상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정의 양주판매지정 승인을 득한 자'로 정하고, 수입양주 판매창구는 공사 특정외래품판매소로 지정했다.

공사는 수입양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외래품판매소 영업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울에 종로·서울역·청량리·동대문·영등포 등 5개 영업소를 추가로 개설했다. 이어 13개 지방도시(인천·수원·청주·대구·부산·춘천·목포·여수·제주·경주·마산·강릉·전주)에 판매소와 6개 위탁판매 대리점(홍익회·서울 명동·대구·부산·인천·춘천)을 설치했다. 또 양주의 부정 유출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에서판매하는수입양주에는'수입원=대한민국국제관광공사, IMPORTER=KOREA TOURIST SERVICE, INC.'라는 한글 및 영문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판했다.

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특정외래품판매소 영업소에서 유래됐다. 공사는 1967년 3월 1일 특정외래품판매소 김포공항 영업소를 개설하고, 1971년 8월 부산 수영공항 영업소와 제주공항 영업소를 연이어 개설하여 운영했다. 당시 영업소는 주로 면세 주류를 판매했으며,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면세점과는 차이가 있었다.

영빈관 개관식 –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테이프커팅(1967. 2. 28)

영빈관과 박정희 대통령 내외(1967. 2. 28)

영빈관 수탁 운영과 민영화

영빈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1959년 1월 착공되었으나 4·19의거로 인하여 자유당 정부가 퇴진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이후 1965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공사에 착수하여 1967년 2월 완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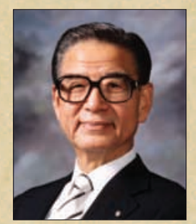
공사는 1966년 7월 열린 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1967년 2월 2일 총무처로부터 정식으로 영빈관을 인수했다. 당시 영빈관에는 건물 5동(건평 913평)과 구축물 73점이 있었고 자산평가액은 28억 5,000만 원이었다. 인수 후 관리는 타워호텔이 맡았으나 1969년 1월 1일 타워호텔이 불하되면서 반도호텔로 운영권이 이관되었다. 운영 첫해부터 1,1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한 영빈관은 1972년까지 계속 손실을 이었다. 이로 인해 국고부담이 증가되고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실익이 적어짐에 따라 정부는 1973년 영빈관을 용도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6월 공매입찰을 거쳐 삼성그룹에 불하했다.

수익시설 민영화와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

1960년대 공사의 타인자본(부채) 의존도는 평균 30%에 이르렀으며 특히 1967년과 1970년에는 약 50% 수준에 도달하여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방호텔을 불하하여 그 대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965년 8월 제54차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호텔을 불하하기 시작했다. 지방호텔은 1965년 10월부터 1969년 4월 사이에 모두 불하하여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원매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투자가들의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불하대금을 연불(延拂)로 분할 환수할 수밖에 없었다. 서귀포·무등산·설악산호텔이 1~2년 이내에 자산매각대금을 회수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호텔들은 장기 연불 형태로 대금을 회수했다.

1965~1971년 동안 지방호텔 불하대금으로 상환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6억 6,599만 원으로, 불하대금 9억 7,521만 원의 약 68%에 달했으며, 나머지 32%는 시설투자에 사용했다. 공사는 지방호텔 불하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정부로부터 법인세 면세혜택과 산업합리화자금 지원을 받아 1971년 부채비율을 크게 낮췄고, 주요 사업체가 민영화되던 1973년에는 5.6%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1973년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사업체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사가 운영하던 대부분의 사업체가 불하되고 조선호텔·반도조선아케이드·특정외래품판매소만 남게 되었으며, 특정외래품판매소 해·공항영업소는 면세점으로 전환되어 공사의 재원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관광산업의 시작과 진단

오재경 3대 사장(1964. 1.18~1965. 6. 11)

◈ 제14차 PATA 총회에서 한국관광의 가능성을 보다

취임할 당시만 해도 관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965년 개최한제 14회 PATA 총회는 관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었죠.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은 한국이 관광에 대한 기본자세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충고를 듣고도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분단 상황은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까지 더해져 끝없는 길을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외국 사람들은 서양을 따라가는 것보다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보였는데 건축가는 한옥으로 숙박시설을 만들 것을 권유했고, 참가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고기 백반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행사를 개최하기 바로 전까지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하던 PATA의 사무국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까다로운 입국절차나 외환제한조치 등의 개선점도 분명히 드러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댈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진단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관광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이 커져야 한다

어느덧 우리는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수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약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것으로 제가 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위상도 달라졌고 책임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외형적인 성장에 도취돼 태도가 거만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위상으로만 본다면 다른 나라를 선도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관광으로서의 위상인지 아니면 그냥 나라 자체의 힘인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보다 관광객이 적고 수입이 적은 나라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관광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장에 만족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 진정한 관광대국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후배 여러분 한국관광공사가 생긴 지도 어느새 50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앞으로 열어갈 50년은 바로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불모지를 개척한 선배들의 여정도 쉽지 않았지만 꼴등에서 10등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10등에서 1등이 되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많이 부족한 선배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관광공사인들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시 한 번 관광공사 50년을 축하드립니다.

제2부

세계를 향해 **한국 관광의 문을 열다**

한국을 찾는 세계, 세계를 맞는 관광공사

제 1 장 ---------- 탄생과 성장을 넘어 도약의 미래를 여는 길

제 2 장 ---------- 관광의 새 역사를 쓰는 도전, 관광 선진국을 향한 비전

제1장

도약의 미래를 여는 길
탄생과 성장을 넘어

제1절

국제관광공사, 세계를 향하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의 한계와 의미

1962년 국제관광공사 창립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일이었다. 그 역사적 의미에 부응하기 위해 공사는 각종 관광사업 수행, 관광 저변 및 관광 수입원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공사의 노력은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또 다른 축이었으며 우리의 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사명이었다.

세계인에게 우리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창립 초기인 1964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제18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되기에 앞서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964년 1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림픽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 산하에 관광분과위원과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유치 활동에 들어갔으나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이었던 정치적 상황과 국내 여행업체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또 다른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은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전쟁에 지친 베트남 참전 미군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휴양지로 선택하게 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1965년 6월 12일에 취임한 김일환 제4대 국제관광공사 총재는 같은 해 10월 교통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주월 미군 휴가 장병 유치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유치사업은 1967년 9월 공사 내에 '주월미군휴가장병 유치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미군 관계자들이 국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답사를 가졌다. 하지만 미군 측의 반응이 미온적인 데다가 베트남 주둔 미군 사령관의 "미군 휴양 대상 지역에 한국을 추가시키기는 어렵다"

국제관광공사 창립은 우리의 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사절로의 사명이었다.

는 발언까지 나오자 베트남 지역 미군 유치사업 또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이처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도쿄올림픽 관광객과 베트남 주둔 미군 유치사업은 관광진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노력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다. 타국을 찾거나 타국에 머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창립 초기부터 국제관광공사의 시선은 이미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국제시장 개척의 이정표 – 제14차 태평양지역관광협회 서울 총회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196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Pacific Area Travel Association) 연차총회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한 전환점이었다. 1964년 1월 취임한 제3대 오재경 총재가

PATA 총회 개막식(1965년)

PATA 총회 개막식(19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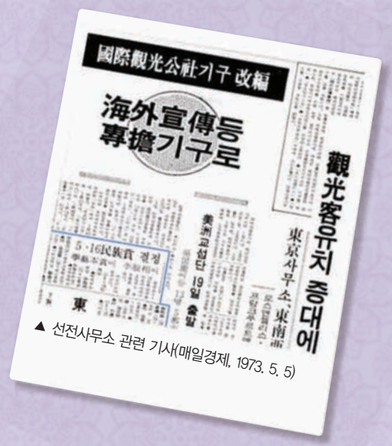
박정희 대통령 환영사(1965년)

같은 해 3월 시드니에서 열린 제13차 PATA 총회에서 차기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자 국제관광공사는 즉시 제14차 서울 총회 준비 업무에 착수했다. 공사는 오재경 총재가 회장직을 겸하고 있던 한국관광협회와 공동으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오재경)를 구성하고, 1965년 1월 공사 내에 PATA총회준비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했다. 공사는 PATA 총회가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관광 관련 국제회의라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한국의 관광 매력을 홍보하는 장이자 국내 관광업계 판촉활동의 기회로 삼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65년 3월 26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PATA 워크숍에서 윤치영 서울시장이 각국 대표들에게 환영인사를 한 데 이어 다음날인 3월 27일 워커힐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환영사를 했다. 4월 2일까지 계속된 총회 기간 동안 25개국 대표 459명(한국 대표 86명 포함)이 태평양지역 국가 간 공동 관광 진흥전략 및 유대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사는 주요 인사의 청와대 예방과 중앙청홀 리셉션을 주선하는 등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PATA 서울 총회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 총회를 계기로 한국 관광의 가능성과 국제회의 개최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한 것이다. 총회 기간 동안 일본교통공사와 여행알선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내 동양여행 전문업체인 시타월드트래블(SITA World Travel) 및 햄필 월드크루즈

ISSUE 06.

홍콩 선전사무소 개소

1969년 7월 진흥이사제도를 신설하면서 일본 도쿄에 최초로 해외지사를 개설한 공사는 1970년 10월 5일 홍콩, 11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 선전사무소를 각각 개설하여 해외 거점을 확충했다. 이 두 선전사무소는 정부의 관광시장 다변화 시책에 부응하며 활발한 해외 관광진흥 활동을 펼쳤다.


國際觀光公社기구 改編
海外宣傳등 專擔기구로
觀光客유치 증대에
東京사무소, 東南

▲ 선전사무소 관련 기사(매일경제, 1973. 5. 5)

▲ 홍콩지사(1989. 1)

(Hamphil World Cruise)로 하여금 세계일주 코스 또는 동양관광 코스에 서울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얻은 것도 적지 않은 수확이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에게 관광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간업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민간 관광사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총회의 또 다른 성과였다. 관광인프라 측면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국제항공 노선 증설과 공항시설 개선, 도시 미화 및 도로 정비 등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로 총회 의장 겸 개최 준비위원장이었던 오재경 총재는 PATA 종신회원(Life Member)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14차 PATA 서울 총회는 당시 우리나라가 유치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한국 관광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기록되었다. 국제관광공사는 서울 총회를 국제시장 개척의 이정표로 삼음으로써 그 같은 의미를 더욱 배가시켰다.

해외조직망 확충과 성과

1969년 7월 진흥이사제도를 신설하면서 일본 도쿄에 최초로 해외지사를 개설한 바 있는 국제관광공사는 1970년 10월 5일 홍콩, 11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 선전사무소(이하 해외지사)를 각각 개설하여 해외 거점을 확충했다. 이 두 해외지사는 이듬해 8월 31일 '발전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되었지만 세계에 한국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공사의 노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1971년 9월 25일 이후 총 4회에 걸쳐 해외 언론인 및 여행업자 초청사업을 실시하고 해외광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공사는 1974년 5월 29일과 7월 11일에 로스앤젤레스와 프랑크푸르트에 해외지사를 각각 개설함으로써 정부의 관광시장 다변화 시책에 부응했다. 로스앤젤레스 해외지사 개설을 계기로 1974년 2월 15일부터 4일간 열린 로스앤젤레스 PATA 워크숍에 이어 같은 해 5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린 북미주 서부지역(샌프란시스코·시애틀·하와이·밴쿠버) 워크숍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 또 같은 해 10월 16일에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트래블서비스'의

PATA 로스앤젤레스 총회(1974. 2. 15~18)

밀튼 페이스 부사장 등 미국 동부지역 여행도매업자 5명을 초청, 서울을 비롯해 판문점·용인민속촌·경주·부산·제주 등을 답사하게 하여 극동지역 투어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시키도록 교섭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외래관광객 급증과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19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서울과 경주 등 국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져갔다. 바로 외국인 방문객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었다.
일본은 1964년 4월 1일에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자유화했다. 여기에 1965년 12월 18일 한·일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자 한국을 찾는 일본인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1966년 방한 외래객 수는 전년대비 103.1%나 증가한 6만 796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일본 관광객 급증으로 방한 외래객 증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학생들과 부산항

일본 고교생 한국 수학여행단

율이 연 30% 이상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최초의 호황기를 맞이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일본 관광객은 1960년대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971년에는 방한 외래객 수의 41.5%를 점유했다.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런 추세는 1973년까지 지속되어 1973년에는 47만 4,773명의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방문, 전체 외래객의 69.9%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는 일본지역 관광시장 저변 확대와 관광객 증대의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특히 단순한 관광에 그치지 않고 일본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 이해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일본 고교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은 1972년 10월 마쓰에부속고등학교 학생 59명이 입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75년에는 한국수학여행협회와 업계에서 일본 사립고교 교장단을 초청, 수학여행 코스를 사전 답사시키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당시 공사는 초청 교장단에게 환영만찬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일본 고교 교장단 초청사업을 공사가 전담하면서부터 일본 고교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본인을 중심으로 외래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개선해야 하는 일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관광지를 10대 관광

권으로 설정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72년 12월 관광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세계와 협력하여 한국을 열다

1971년 4월 대한관광협회중앙회(KTA) 전무이사와 일본국제관광진흥회(JNTO) 전무이사가 양국 관광기구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한·일관광진흥협의회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제관광공사 총재를 겸하고 있던 KTA 안동준 회장과 JNTO 총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했다.

1. KTA와 JNTO는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자국민의 상대국 여행에 적극 협력한다.
2. 매년 4월에 서울과 도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양 기구는 선전물을 상대 기관의 해외사무소 등에서 배포한다.
4. 선전물에는 가능한 한 상대국의 관광소개를 하고 민속, 특산물 및 각종 행사를 전시 소개한다.
5. JNTO는 호텔종업원, 안내원, 경영자, 관리자의 도일(渡日) 교육을 주선한다.

이어 1972년 11월 서울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3차 회의부터는 국제관광공사가 협의회 업무를 주관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지역관광협회(EATA)는 1967년 JNTO의 제의로 동남아 7개국 정부 관광기관이 모여 관광진흥을 위한 상호 협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였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KTA가 창립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오다가 1972년 4월 정부의 지시에 따라 EATA 업무가 국제관광공사로 이관되었으며, 이후 공사가 정회원 자격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3년 4월 9일부터 나흘 동안 일본·홍콩·자유중국·필리핀·태국·싱가포르·마카오 등 8개국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7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유럽 및 미주지역에 대한 공동 선전 방안을 심의함으로써 공사의 국제적 위상도 더욱 강화되었다.

제2절

관광진흥 체제로의 업무 전환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와 '관광의 달' 행사

1970년 10월에 개최된 제10차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토산품 개발과 발전에 관심을 표명하고 토산품을 적극 개발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토산품특별연구위원회가 발족되어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의 품질향상과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지도·육성이 시작되었다. 1971년 3월 4일 교통부 주최로 열린 관광토산품연구소위원회는 이 위원회를 국제관광공사 내 상설 기구로 설치·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전국적으로 토산품 수집에 나섰고, 토산품개발 전담기구로 관광토산품개발연구위원회(위원장 개발담당이사)를 설치했다. 공사가 수집한 토산품들은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수집한 외국 토산품과 함께 1971년 3월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월례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공개된 데 이어 1971년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출정보센터 전시장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전시되었다.
제1회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요강이 내무부·상공부·교통부 합동 공고로 게시된 것은 1971년 7월 6일이었다. 대회 개최 요강 공고 후 공동 주관 기관인 국제관광공사와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1971년 7월 13일부터 8일 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집행위원회·심사위원회·사무국의 3개 운영 체계, 대회 기간, 심사기준, 전시 방법 등을 확정하였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 국제관광공사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공동 주관으로 197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1회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가 국립중앙공보관에서 개최되었다. 예선 15일과 본선 10일 동안 토산품의 착상, 기술성, 경제성, 조화미, 수출 가능성, 대량 생산 가능성 등에 따라 전시품과 사진콘테스트로 나누어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20일의 전시 기간 동안 제1회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를

ISSUE 07.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 개최 한국자원총람 발간

197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립중앙공보관**에서 제1회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출계약 체결액 35만 달러, 전시장 판매수익 약 95억 원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우리나라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한국자원총람〉을 **발간**하는 등 **수출** 및 관광 진흥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 민예품경진대회 개관식 1

▲ 민예품경진대회 개관식 2

찾은 관람객은 1일 평균 1만 명, 총 19만 명에 달했으며, 수출계약 체결 35만 6,404달러, 전시장 판매수익 94억 9,310만 원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 및 관광 진흥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충족시킨 것이며, 그 숨은 주역이 바로 국제관광공사였다. 한편 1971년부터는 '관광의 달' 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 행사는 이후 관광사업진흥촉진대회로 개칭되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관광종사원서비스기능경연대회(통역안내, 호텔조리, 칵테일, 식당 관리 등), 종업원 위로행사와 같은 다양한 행사로 발전하였다.

조직의 효율성과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개선해야 하는 일은 정부의 과제이자 국제관광공사의 과제이기도 했다. 1960년대 말부터 방한 외래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수용할 관광호텔 신축, 관광 안내원 및 관광종사원 양성 등이 더욱 절실해졌다. 하지만 관광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당시에는 공사가 관광사업체 운영에 주력하던 시기였고,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과 시설투자자금 수요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관광진흥사업 수행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공사의 당면 과제였다.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다각적으로 대응하던 1972년 8월 공사는 기구와 인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 효율성과 경영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직제개편의 주된 방침은 '발전성이 없거나 업무가 중단된 지사 및 영업소는 폐지하고 공사의 일부 기구는 통폐합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진흥부와 개발부를 진흥개발부로 통합하고, 기획실을 기획영업부로 개편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및 홍콩지사, 추풍령관광안내소, 워커힐유스호스텔, 시판양주 9개 지방 영업소, 대한여행사 5개 영업소 및 정기관광영업소 등을 폐쇄했다. 또 반도호텔이 운영하던 영빈관을 총무처로 이관하고, 외제차량거래소를 운수사업소에 통합시켰다. 이듬해인 1973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던 반도호텔·대한여행사·운수사업소 등 대부분의 사업체를 민간에 불하했다.

ISSUE 08.

보잉보고서 발간

1973년 3월 교통부는 **관광조사 전문**용역회사인 미국의 **보잉사**에 **한국 관광시장**에 대한 분석을 용역 **의뢰**했으며, 이후 보잉사는 **7개월 동안**의 작업을 거쳐 1974년 2월 **'보잉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관광 여건**을 중점적인 조사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국 관광의 중장기 **개발전략**을 제시한 최초의 **관광개발계획서**이다.

▲ 보잉보고서의 영어판과 번역판

세계 경제 침체의 위기를 관광진흥으로 극복하다

관광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제관광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3년은 '관광 한국'의 길에 먹구름이 드리운 해였다. 1973년 말 OPEC의 원유생산량 감산 조치와 원유가격 대폭 인상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충격적인 '오일쇼크'가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1974년 4월 대통령령으로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면서 민청학련에 관련된 일본인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그 해 8월 15일 조총련계인 문세광에 의해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 변화 속에 급기야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한국 관광을 억제시키는 이른바 '도항자숙(渡航自肅)'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일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관광산업도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공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73년 3월 교통부는 관광조사 전문 용역회사인 미국의 보잉사(The Boeing Company)에 한국 관광시장에 대한 분석을 용역 의뢰했다. 이후 보잉사는 '아더 리틀 영 연구소' 및 '레오. A. 댈리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7개월 동안의 작업을 거쳐 이듬해인 1974년 2월 한국관광개발조사보고서(보잉보고서)를 발간했다. 보잉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시장, 지역개발, 관광기반시설, 재무 및 관리, 운영 및 교통, 선전 부문 등을 중점적인 조사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국 관광의 중장기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개발 대상지역을 국제관광지와 국내관광지로 나누고, 국제관광지 개발 우선순위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라 교통부는 국제관광지 1차 개발대상 지역을 설악산·경주·제주·한려수도의 순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1973년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 운영이라는 공사의 기존 경영체제와 사업방향은 관광진흥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1973년 11월 공사는 진흥개발부 업무 가운데 그 중요성과 업무량이 현저히 커진 연구조사 및 개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개발부를 신설했다. 조사개발부에서는 국내외 관광 동향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국제관광정보〉지를 발간했으며, 이 책자는 사내뿐 아니라 유관기관 및 업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또 1973년에는 공사 최초로 한국 관광 종합브로슈어 6만 부와 관광캘린더, 1974년에는 선전

간행물 30종 113만 부를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부하기도 했다.
1974년 4월에는 세계 최대 관광행사의 하나인 독일관광박람회(ITB, International Tourism Exchange) 참가 초청을 받았다. 당시 일본에 편중된 관광시장을 유럽지역과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던 공사는 ITB 참가를 통해 유럽시장 개척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참가 준비를 시작했다. 박람회 참가에 앞서 프랑크푸르트사무소가 사전조사와 준비에 착수했으며, 한국디자인포장센터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100㎡ 규모의 한국관 설계를 의뢰했다.

"한국 방문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

공사는 1975년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개최된 ITB박람회에 김좌겸 사장을 포함한 국내 관광업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세계 57개국에서 약 400개 관광업체가 참가한 이 박람회에는 대회기간 중 연인원 13만 명이

미 해병대 참전용사 120명 초청 행사(1976. 9. 11~14) 1

미 해병대 참전용사 120명 초청 행사(1976. 9. 11~14) 2

관람하였으며, 공사가 운영한 한국관에는 9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공사는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 관광 홍보영화를 상영하는 한편 3만 부의 선전 책자와 2,500점의 기념품을 배포했으며, 한국음식 소개, 민속무용 공연, 전통 민예품 전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ITB박람회 참가 후 대표단은 서독·벨기에·프랑스·미국·일본을 순회하면서 한국 관광을 홍보하고, 각국 여행업자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쳤다. 특히 유럽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활동과 함께 현지 재향군인회를 방문, 한국전 참전용사 유치 교섭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1975년부터는 1979년까지 5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삼아 재향군인회와 공동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문 유치사업을 전개했다. 광복 30주년과 한국전쟁 25주년을 맞아 국가적인 종합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한국에서 근무한 바 있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한국 방문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전 참전에 보답하는 동시에 경제·문화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시장 다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75년 1월 21일 국제관광공사 김좌겸 사장과 재향군인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참전용사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공사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유치 활동, 소요 경비 지원, 특별초청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공사는 미주지역의 로스앤젤레스 및 뉴욕지사, 호주지역의 시드니지사, 구주 및 기타 지역의 해외지사를 통해 유치활동을 벌였으며 매년 수차례에 걸쳐 한국전쟁 참전 우방국에 유치 교섭단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유치사업을 벌여 나갔다.

공사는 재방문 참전용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치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한 초청인사의 항공료, 체재비, 관광비용을 부담했으며, 자비 부담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체재비 지원(1인당 140달러 이내) 외에도 특별행사와 참전기념비 방문행사 경비를 지원했다. 대한항공에서는 항공요금 특별할인 혜택을 주는 한편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미주지역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체재비(1인당 30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 미주, 유럽, 동남아지역의 현지 지점망을 활용하여 유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대한항공에서 발간하는 선전물 또는 지면광고의 일부를 할애하여 유치사업을 소개·선전했다.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들은 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환영행사에 참가하고, 서울·경주·부산 등의 관광지와 춘천·인천·임진강 등의 격전지를 순방했으며, 한국전쟁 참전 주요 우방국들의 참전기념비 제막식에도 참석했다.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들의 소감은 한결 같았다. "한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발전상에 놀라울 뿐이다", "한국은 가장 우호적인 국가이며 한국 방문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는 반응이 그것이었다.

관광산업을 격상시키기 위한 시장 다변화

●

공사의 노력과 병행하여 정부는 일본에 편중된 관광시장을 구미지역과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하는 시장다변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1975년 2월에는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수출산업에 준하는 세제감면 혜택과 금융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규 호텔 건설과 기존 호텔의 개·보수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3년의 위기를 딛고 1975년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된 시기이자 동시에 공사의 기본 업무가 관광진흥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된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1975년 4월 4일 국제관광공사법을 개정하여 공사의 기본 업무를 관광진흥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으로 개편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45억 원의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대폭 증자하고, 임원을 5명

착공 전 보문관광단지 개발 예정지

ISSUE 09.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정

정부는 1975년 4월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했다. 이때 공사의 기본업무에 관광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발효되자, 8월 1일 자회사인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보문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 경주보문관광단지 개장(1979. 4. 6)

에서 7명으로 증원했다. 동시에 정부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관광진흥사업을 대폭 강화하였고 참전용사 유치사업과 일본고교수학여행단 유치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했다. 또 1975년 7월 15일 오사카에 이어 8월 1일 뉴욕에 해외지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해외 조직망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착수, 1975년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부여·공주·설악산 관광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그 해 8월 1일에는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보문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1975년 6월 13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공사의 유일한 재원조달 창구인 특정외래품판매소 항구·공항 영업소에서 양주 외에 다른 외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취급 품목 다양화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공항면세점 단독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 1976년 1월에는 조세감면법을 개정, 그동안 공사가 수익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매년 납부해오던 약 2억 원의 법인세와 약 5,000만 원의 재산세를 면제받도록 했다.

이같은 일련의 정부 방침에 따라 국제관광공사는 관광진흥사업과 관광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국제관광공사는 탄생과 성장을 넘어 도약의 미래를 여는 길 앞에 서 있었다.

제2장

관광 선진국을 향한 비전

관광의 새 역사를 쓰는 도전,

제1절

국가 전략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관광이 곧 수출이다" – 전략산업으로 격상된 관광산업

1973년 말 제1차 오일쇼크와 1974년 한·일 관계 급랭으로 인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1975년 2월 3일 교통부를 연두 순시한 박정희 대통령은 '관광 불황 타개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업계의 불황 타개와 관광사업 육성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의 의제로 제출했다.

1975년 2월 7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제기획원·상공부·재무부·내무부·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제관광 진흥 기본 방향을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수출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제관광 진흥 기본 방향을 수립했다.

1. 관광산업을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킨다.
2.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관광진흥 장애요소의 제거로 관광객 유치를 촉진한다.
3. 관광을 통해 국제유대를 강화하고 외래관광객을 국위선양의 홍보요원화 한다.
4. 국제적 시장성과 중요도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요 관광지를 집중 개발한다.
5. 수출산업에 준하여 금융·세제·행정적 지원을 한다.
6. 관광시설과 서비스를 국제수준화하고, 국민의 관광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한다.
7. 능률적이고 강력한 관광행정을 위하여 관광행정기구를 강화한다.

이 간담회에서는 우선 관계 부처에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당면 과제인 금융 지원, 세금 감면, 전기요금 요율, 외화사용 한도액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당초 예정된 바와 같은 중장기 과제 수립은 없었지만 위의 기본 방향은 관광산업을 당시 국가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초석인 '수출산업'과 동등한 가치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식 전환을 확인하게 했다.

경주관광개발공사(1975년)

정부는 경제장관간담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장기·저리 금융지원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이라는 제한에 묶여 장벽에 부딪혔던 관광사업을 독립 업종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시설자금 30억 원, 운전자금 2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12%의 장기 저리로 융자하기로 하였으며 운전자금은 6개월 내지 1년간 시중금리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광호텔의 전기요금은 외화 획득분에 한하여 산업용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부담이 커지는 종전의 체증제(遞增制)에서 외화 획득이 많을수록 부담이 적은 체감제(遞減制)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이트클럽 30%, 식당 15%, 객실 10%였던 관광호텔의 유흥음식세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제관광업자에 관한 외국환 취급요령'을 제정하여 국제여행알선업체의 해외판촉비 사용한도액을 종전의 1,000달러에서 수출업체와 같이 2,000달러로 인상함으로써 해외 판촉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규 호텔 건설과 기존 호텔 시설 개·보수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떳떳한 독립 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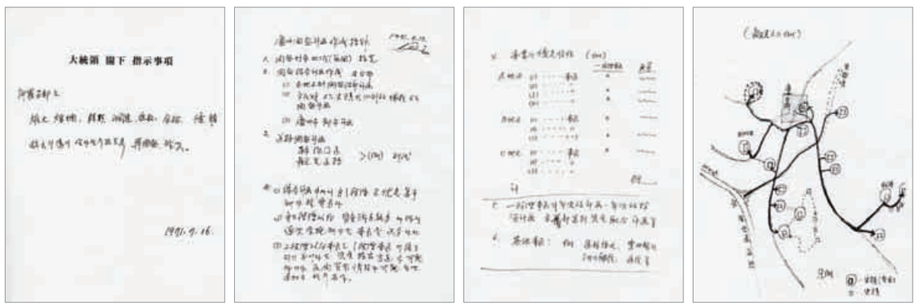
한편 한·일 관계의 변화에 따라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결과는 곧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일본 관광객 의존도가 얼마나 큰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재활성화 여부는 일본인 관광객에 있었다. 1975년 2월 일본 정부의 한국여행 자제 조치 해제와 엔화 강세로 일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1976년부터 우리나라 관광산업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런 회복세를 지속하고 나아가 관광산업의 대일본시장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관광공사의 노력도 더욱 확대되었다. 1975년 국제관광공사법이 개정되어 공사의 기본 업무에 관광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발효되자, 공사는 부여·공주·설악산 관광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 의뢰했다. 또 같은 해 8월 1일에는 자회사인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했으며, 1976년 설악동개발사업, 1978년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등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관광산업을 진정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사명 앞에, 국제관광공사의 남다른 사명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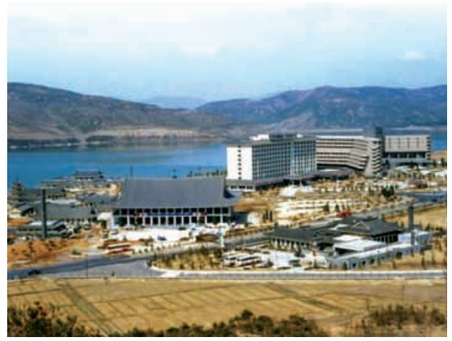
천년 고도(古都)를 되살린 경주보문관광단지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1년 6월 12일 청와대에 관광개발계획단이 발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관광개발계획단은 같은 해 8월 13일 경주관광종합계획을 마련했으며, 1972년 1월 5일에는 사업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으로 경주개발건설사무소를 설립했다.



경주보문관광단지 박정희 대통령 지시사항

경주보문관광단지(1979. 4. 6) 1


경주보문관광단지(1979. 4. 6) 2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공차관을 도입하여 충당하기로 했으며, 1974년 1월 4일 정부와 세계은행(IBRD)은 경주관광개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차관협정서에 서명했다. 차관협정서는 1974년 7월 1일까지 경주관광개발공사(KTA, Kyongju Tourism Agency Incorporated)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작성한 후 세계은행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 1975년 1월 1일까지 KTA를 설립하며,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KTA의 소장 및 간부를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1974년 8월 9일에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정부 관계 부처 연석회의에서 "보문관광단지의 토지와 시설을 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관리 운영토록 한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같은 해 10월 8일 경주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1975년 4월 23일에는 정부와 세계은행이 국제관광공사의 전액 출자를 통해 경주보문관광단지를 인수 운영할 KTA를 설립하도록 합의했다. 곧 이어 KTA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발기인 총회와 창립총회를 거친 후 같은 해 7월 29일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마침내 경주관광개발공사가 탄생했다. 당시 KTA에 부여된 임무는 정부가 건설한 경주보문관광단지를 인수·관리하여 이를 국제 수준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유지하고, 토지·건물 및 시설물의 매매 임대 또는 운영, 조경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등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었다.

KTA 설립으로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은 본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경주 도심지로부터 동쪽으로 6.5km 거리에 위치한 총 312만 평의 관광단지에는 48만 평의 호수를 비롯하여 65만 5000평의 골프장이 들어섰다. 또 공사와 대림산업이 합작투자로 건설한 객실 수 300여 개의 경주조선호텔 및 경주도큐호텔이 자리 잡았고, 호수를 중심으로 관광 위락지를 상징하는 높이 22m의 5층 6각형 관광탑, 연립상가, 오락시설 등이 세워졌으며 연건평 570평 규모의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옥이 건설되었다. 이와 함께 보트놀이와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호반시설이 갖추어졌고 9.3km에 이르는 관광단지 순환도로도 말끔히 새 단장되었다.

이 같은 시설을 갖춘 경주보문관광단지는 1979년 4월 6일 제19차 PATA 워크숍을 앞두고 1차로 개장되었다. 하지만 개장 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단지 내 관광시설업체의 경영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국내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이용시설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단지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강구했다.

경주보문관광단지 개장식(1979. 4. 6)

ISSUE 10.

제주중문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 중문개발사업소 개소식(19787. 4. 25)

1977년 12월 19일 제주중문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1976년 10월부터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여 1977년 12월 31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두 사업은 관광지 개발의 사례가 거의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도적** 개발사업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

▲ 설악동 개발(1978. 3. 20)

▲ 제주중문개발사업소 개토장(1978. 4. 25)

제주 관광자원 개발의 신호탄, 제주중문관광단지

1973년 2월 16일에는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이 "제주시에서 중문에 이르는 관광도로를 개발함과 동시에 국제위락관광지로서 제주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제주도관광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공사는 1977년 2월 21일에 열린 청와대 주재 관계관회의에서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을 위탁받아 12월 19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공사가 수립한 제주중문지구종합개발계획의 기본 방향은 제주도 전역이 훗날 관광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고려하여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색달리 일원 50만 평의 대지 위에 관광중추기지를 개발하고, 1980년대 외래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 수준의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공사는 1977년 12월 31일 남제주군과 토지위탁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1978년 4월 1일에는 단지개발의 운영 주체가 될 중문개발사업소를 발족시켰다.

공사는 1978년 12월 31일에 '제주중문지구 종합개발확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했으며, 이 계획의 기본 방향은 관광시설의 정비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을 최대한 보존시킨다는 것이었다. 개발 기간은 1단계(1978~1981년)와 2단계(1982~1986년)로 구분하였고, 개발 범위는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및 대포동 일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기본 척도인 관광객 추정에 어려움이 따랐고 국내외 관광 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태였다. 또한 중문관광단지개발계획의 방향이 국제수준급 위락 관광단지의 조성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내국인 이용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국내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문제점도 드러

제주중문관광예정지 계획도

제주중문개발사업소 현판식(1978. 4. 1)

제주중문관광호텔 기공식(1970년)

났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자 공사는 관광단지 개발 규모를 34만 평으로 축소하고 잔여 면적은 차후에 개발하기로 유보했다.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모범적 사례, 설악동 신집단 시설지구

●

1973년 2월 발족한 설악산 관광개발계획단은 자료수집 및 현지답사를 통해 1, 2차 설악산관광개발계획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교통부가 제시한 한국관광진흥장기계획을 참고로 보완하여 1975년 4월 청와대가 주재한 관계관회의에서 설악산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

1975년 5월 강원도는 '기존 지구 정비를 강원도 주관사업으로 추진하되 철거보상비는 국고로 지원하고, 신단지 건설사업은 관광공사가 강원도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했다. 이 계획안은 1976년 2월 청와대가 주관한 관계관회의에서 추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설악동종합개발계획의 기본 방향에 따라 설악동 신집단 시설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1976년 10월 2일 착공하여 1977년 12월 31일 성공적으로 완료된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은 우선 하나의 짜임새 있는 관광단지를 건설했다는 점, 관광지 개발의 사례가 거의 없었던 시기의 사업이었으므로 선도적 개발사업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겼

개발 전 설악산관광호텔 본관(1974. 3. 13)

설악산관광호텔 기공식(1978. 1. 20)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종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호텔 건설에 치중해왔던 관광개발사업을 경주보문관광단지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었다.

설악동 개발사업을 통해 3만 평의 기존 관광촌이 소공원으로 조성되었고, 8만 500평의 시설면적을 지닌 신단지가 들어섰다. 또 1동 60실에 불과했던 호텔시설이 3동 301실로, 145개 상가 점포가 248개 점포로, 23개의 식당이 38개로 늘어났고,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 졌으며,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6m에서 8m로 확장되었다. 이밖에 주택·주차장·주유소·공공기관·휴게소·전화·교육기관 등의 시설이 확충되거나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다.

전국에 호텔 합작투자 건설 추진

●

197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외래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국제수준급의 관광호텔이 서울과 제주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특히 관광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외래관광객 유치와 수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방호텔을 신축하는 일이 시급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의 조선비치호텔, 경북의 금오산

ISSUE 11.

지방호텔 합작투자 (7개 호텔)

1970년대 중반부터는 **합작투자** 형태로 **지방호텔** 건설에 **적극** 참여했다. 1975년 12월 부산 조선비치호텔 건설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77년 부여유스호스텔과 구미 금오산관광호텔, 설악산호텔, 경주 조선보문호텔과 경주보문호텔, 1980년 내장산관광호텔 등 **전국 각지**의 **지방호텔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 부여유스호스텔 조감도(1978. 4. 12)

▲ 부여유스호스텔 개관(1978. 4. 15)

관광호텔, 강원도의 뉴설악호텔, 충남의 부여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국제관광공사는 합작투자 형태로 이들 호텔 건설에 적극 참여하였다.

먼저 1975년 12월 총 투자액의 10.61%를 출자하여 조선비치호텔 건설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77년에는 부여 지역의 관광개발과 국내외 청소년 및 각급 학교 수학여행단 유치를 목적으로 착공된 부여유스호스텔의 건설소요자금 7억 5,000만 원 중 6억 원을 투자했다. 1977년 10월에는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금오산관광호텔에 총 투자액의 58.88%에 해당하는 8억 5,920만 6,000원을 출자했다. 또 1975년 10월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설악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뉴설악호텔을 건설하기로 하고 1977년 10월 대우개발과 함께 설악산호텔을 설립, 총 건설비 25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지방호텔 건설은 점차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1977년 '경주보문관광단지 내에 최소한 750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자 공사는 총 투자액 중 57%를 출자하여 조선보문호텔을, 총 투자액 중 51.6%를 출자하여 경주보문호텔을 각각 건설했다. 1980년에는 자금난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된 내장산관광호텔에 단계적으로 총 1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지방호텔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전쟁의 상처를 역사의 현장으로 – 전적지 개발

1976년 2월 국방부와 교통부, 국제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계획한 전적지개발사업은 한국전 당시의 전적지들을 개발하여 국가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반공교육의 산 자료로 삼으며,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었다. 1976년 12월 전적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었고, 그 해 12월 30일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국장급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는 1977년 1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업을 교통부가 추진하되 공사가 대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77년 7월 9일에 교통부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1977년 11월 춘천·왜관·영산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한 이후 1980년 11월까지 12개 지구의 전적지개발을 완료했다. 이어 1980년 12월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가 1981년부터 전적지개발사업을 내무부로 이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사의 전적지개발 업무도 1980년 말로 종료되었다.

전적지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참전용사 유치사업이었다. 이미 197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공사는 1979년까지 5년간 재향군인회와 공동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문 유치사업을 전개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975년 1월 21일 공사 사장과 재향군인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참전용사유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공사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해외지사를 통해 유치 활동을 벌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공사가 개발 완료한 춘천지구 전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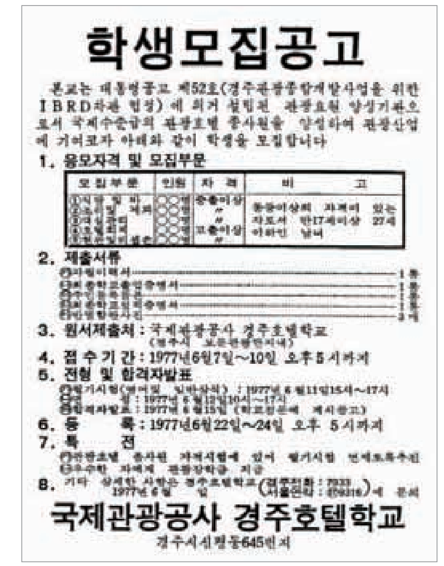
제2절

열정과 도전으로 외래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다

서비스 제고와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종사원 교육 및 지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 방향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관광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서비스 또한 더욱 전략적이어야 했던 것이다.

국제관광공사는 1975년 외국 관광객이 투숙하는 관광호텔의 음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수준의 호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공사훈련원 내 조리 부문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지방호텔과 하급호텔에 대한 순회지도 교육, 조리사 및 접객원에 대한 실습교육 및 재훈련, 조리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모집공고
1. 응모자격 및 모집부문
2. 제출서류
3. 원서제출처 : 국제관광공사 경주호텔학교
4. 접 수 기 간 : 1977년6월7일~10일 오후5시까지
5. 전형 및 합격자발표
6. 등 록 : 1977년6월22일~24일 오후 5시까지
7. 특 전
국제관광공사 경주호텔학교

경주호텔학교 학생모집공고(동아일보, 1977. 6. 8)

또한 관광업계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면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1975년 12월 29일 관광요원훈련원 청사를 완공했다. 신축된 훈련원에는 강의실, 어학교실, 실습실(주방·객실·식당), 강당, 기숙사 등을 갖추어 교육 범위와 내용을 더욱 다양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7년 6월 27일 경주호텔학교가 개교하자 관광호텔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과 공급이 더욱 원활해졌다. 호텔학교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했으며, 개교와 동시에 1년 과정의 현관 및 리셉션, 식당 및 바, 조리 및 제과, 호텔회계 등 4개 과 호텔종사원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후 전국 시·도 관광 담당 공무원교육, 관광호텔 경영주 해외시찰교육, 통신교육, 새마을교육 등으로 교육의 질적·양적 확대를 이루어갔다.

1979년에 들어와서는 PATA 총회에 대비, 국내 관광업계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 한층

ISSUE 12.

경주호텔학교 개교

관광업계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77년 6월 27일 경주호텔학교를 개교하여 관광인력 양성과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했다. 호텔학교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했으며, 개교와 동시에 1년 과정의 4개 호텔종사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교육의 질적·양적 확대를 이루어갔다.

▲ 개교 당시의 경주호텔학교 (이후 경주관광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제1회 경주호텔학교 입교식(1977. 6. 27)

경주호텔학교 관광종사원 양성교육 – 요리실습(1980. 9)

경주호텔학교 관광종사원 양성교육(1980. 9)

강화되었고 교육 대상도 확대되었다. 또 1980년에는 관광사업법 및 관광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관광업계 종사원이나 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이로써 관광요원훈련원의 업무와 역할도 한층 확대 강화되었다.

이 같은 교육 강화와 함께 관광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시정하고 거래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점검도 확대 실시되었다. 1976년 11월 교통부는 관광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다음 달 교통부차관을 위원으로, 내무부 치안본부 3부, 보사부 위생국장, 교통부 관광국장, 서울시 관광운수국장, 국제관광공사 부사장을 위원으로 하는 관광서비스개선협의회를 설치 운영했다.

이어 1977년 1월 15일 지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지도부가 공사 내에 설치되었으며, 1977년 5월에는 지도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 지도부와 교통부 2명, 서울시 1명으로 구성된 관광사업개선전담반이 구성되었다. 지도부는 관광숙박업, 여행알선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 유관장소를 담당할 각 부문 4개 반 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관광업소의 서비스와 거래 질서를 점검 조사하여 불량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건의하고 관광서비스개선협의회의 지시 사항을 수행했으며, 부조리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했다.

한편 1978년 정부는 증가하는 외래객 수용을 위해 내국인의 관광호텔 이용을 억제

하고, 단체 외래객에게 객실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며, 비수기에는 객실요금을 할인 적용하도록 각 호텔에 권장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1978년 3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도부장을 실장으로 하고 공사 및 업계 직원(공사 2명, 한국관광협회 2명, 여행업계 2명, 호텔업계 3명)으로 구성된 관광호텔예약통제실을 설치 운영했다. 예약통제실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내 관광호텔 객실 예약 상태 파악, 단체 관광객 객실 우선 배정을 위한 예약 지도, 여행사와 호텔이 유치한 국적별 단체객 투숙인원, 배정 객실수, 숙박일자 파악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호텔을 비롯한 여행사, 관광 유관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 비위조사도 실시했다.

1980년 관광서비스개선협의회가 해체되면서 지도 업무는 종전대로 교통부가 관장하게 되었으며, 공사도 기구개편을 통해 교육지도부를 신설하여 지도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국민관광부 지도과로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어 운영되었다.

관광사에 한 획을 그은 '최고의 컨벤션', 1979년 제28차 PATA 서울 총회

제14차 PAT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 것은 1965년이었다. 공사는 이후 매년 각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와 연 4회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미주 및 유럽지역의 지부회원 초청세미나, 한국지부의 설치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는 PATA 총회를 다시 한국에 유치하는 활동도 병행되었다.

1971년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0차 회의에 참가한 PATA 한국지부 회원들은 1975년도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처음으로 제의했다. 이때는 1972년 말레이시아, 1973년 도쿄, 1974년 인도네시아 개최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4년 후인 1975년 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호주·인도 등과 경합을 한 끝에 1975년도 총회 개최지는 호주로 결정되었다.

말레이시아 총회가 열렸던 1972년에는 그동안 교통부가 맡아왔던 PATA 한국지부 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었다. 이를 계기로 안동준 총재를 단장으로 한 38명의 대표단은 서울 총회 재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교섭 활동을 펼쳤으나 역시 유치에는 실패하고

PATA 이사회(1972. 7. 9)

말았다. 말레이시아 총회에 참가했던 한국 대표단은 반도호텔에서 귀국보고회 겸 해단식을 갖고 'PATA 총회 유치는 현장에서의 캠페인보다는 막후교섭이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1977년 총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다시 펼치기로 했다.

1972년 11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2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에 한국 측 대표로 참가한 공사의 정성관 부사장은 1977년도 총회를 한국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일본 국제관광진흥회(JNTO)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PATA 회원국 대표들과의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1977년 총회 역시 홍콩으로 결정되었다.

1975년 호주 시드니 총회에 참가한 한국 측 대표들은 인도 관광청장과 필리핀 관광장관 등과 교섭을 벌여 1978년 인도, 1979년 한국, 1980년 필리핀으로 개최지를 안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76년 4월 하와이 총회에서 한국 측 대표단장으로 참가한 김연식 진흥이사가 1979년 서울 총회 개최를 정식 제안, 마침내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1977년 3월 28일 PATA 한국지부는 1979년 PATA서울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 제1차 회의와 현판식을 갖고 총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어 청와대와 교통부 및 관계 부처, 대한항공 등 관련기관과 관광업계를 망라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공사는 총회 준비를 직접 주관하여 추진하되, 실제 행사 진행 및 추진은 준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관계 기관 및 업계가 직접 담당하고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어 공사는 미주·유럽·동남아지역 주요 도시에 유치단을 파견, 총회 참가 유치 활동을 벌였다. 특히 1978년 인도 총회에서 김좌겸 사장이 PATA 의장으로 피선되면서 서울 총회를 위한 준비 작업도 더욱 본격화되었다. 1978년 2월 24일 'PATA 79 서울총회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 각 기관 및 업계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12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준비위원회는 공사 내에 사무국을 두고 PATA본부에 설치된 한국총회 계획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국민적인 협조를 유도했다.

1978년 7월 쉐라톤워커힐 신규 호텔, 1979년 3월 호텔신라 및 호텔롯데 개관도 각종 회의와 행사를 무난히 치르는 데 필요한 큰 자산이었다. 또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 콜택시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등 PATA 총회 준비는 그 과정 자체가 관광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쉐라톤 워커힐 호텔(1978년)

제28회 PATA 총회 개회식(1979. 4. 16)

1979년 4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규하 국무총리, 황인성 교통부장관, 정상천 서울특별시장, 주한 외교사절 등 각국 대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의장인 김좌겸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8차 PATA 서울 총회의 역사적인 막이 올랐다.

제 28회 PATA 총회 폐회식(1979. 4. 18)

박정희 대통령은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독한 치사에서 "하나의 세계 가족을 지향하는 오늘날 멀고 가까운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만나고 사귀어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심화하는 일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총회 의장인 필리핀 관광장관의 답사, 한국의 관광자원과 발전상을 소개하는 시네마스코프 영화 상영, 미국 허드슨연구소 허만 칸 박사와 로만 크로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서울 총회는 PATA 창설 이래 워크숍에 이어 총회를 개최해 왔던 기존 포맷을 바꾸어 총회를 먼저 여는 변화를 보였다. 또 기존 총회와는 달리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졌다. 43개국 2424명(국내 대표 499명 포함)이 등록, PATA 총회 사상 최초로 참가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워크숍에는 각국 대표 1080명과 국내 대표 209명 등 총 1289명이 참석했다. 또한 PATA 사상 최대인 7개 국가가 문화제 행사를 실시해 인근 지역 간의 공동 유치활동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내 여행업자들과 미주 및 유럽지역 여행업자들 간에 한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이 실시됨으로써 이들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경주에서 개최된 제19차 PATA 워크숍에서는 경주보문관광단지의 특성, 개발 과정 및 효과를 주요 사례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대표 의제로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채택하여 개발계획, 재정금융, 투자유치, 시장개척 및 판매선전, 관광요원 교육, 관리운영, 후속계획 등 경주보문관광단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경주보문관광단지는 전통문화 보존 및 자연보호와 관광지 개발이 조화롭게 실현된 좋은 예로 평가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개발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 및 조언을 요청했다.

PATA 선전물 1

PATA 선전물 2

1951년 PATA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제회의 수용 시설과 개최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회의 유치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공동 협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총회에 참가한 외국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문화 및 훌륭한 관광자원을 안내·소개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올바른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근대화된 농촌과 높은 수준의 관광단지를 둘러 본 외국 언론들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당시까지의 인식을 벗어나 '발전하고 있는 활기찬 나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친절한 나라'라는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PATA 창립 이래 처음으로 총회·워크숍·관광교역전이 동시에 개최된 제28차 PATA 서울 총회는 특색 있는 국제행사를 통해 회원국들로부터 '최고의 컨벤션'이라는 평가와 찬사를 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록되었다.

관광산업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열정과 도전

1975년 관광진흥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국제관광공사는 1976년 10월 15일 후쿠오카, 1977년 4월 1일 파리, 1978년 1월 16일 싱가포르에 해외지사를 설치했다. 1979년에는 7월 4일 시카고, 9월 1일 시드니, 9월 15일 나고야지사를 연이어 설치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및 한국관광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수출산업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외래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전국에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호텔 신축을 촉진시키는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했다. 국제관광공사 또한 해외조직망을 확충하여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광단지 개발, 호텔 합작투자 등 국내 수용시설 확충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공사는 우선 해외지사의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관계 인사 초청에 적극 나섰다. 또 국내 각 기업체 해외주재원을 한국관광 홍보요원으로 삼기 위해 1978년 5월 12일 국내 기업체 간부를 초청하여 외래객 100만 명 유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초청된 기업체는 13개 종합무역상사, 17개 무역회사, 11개 건설회사이며 이들 해외지사에 선전간행물 40만 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조직을 통해 현지 민간인과 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어갔으며, 한국전 참전용사유치사업, 일본고교수학여행단유치사업 등의 정책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

대국민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관광진흥의 길〉 15만 부를 발간하여 반상회에 배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 건전 관광질서 확립, 관광자원 보존, 자연보호, 외국인에 대한 친절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문공부에서 제작한 '내가 본 한국'이라는 영상물을 전국 시·도에 제공하여 한국 관광과 외국 관광을 비교하면서 관광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부 및 문공부와 한국 고유 향토음식개발을 협의하고 전문기관에 의뢰, 전통음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세종대학교 부설 한국전통음식연구소를 통해 〈관광향토음식 개발보고서〉를 발간했다.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와 열성도 지속되었다. 1978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 지도부 간부를 파견하여 관광업계를 시찰하도록 하고 각국의 관광 수용시설, 관광 안내시설, 토산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국내 관광서비스 개선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 1978년 5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호텔 간부 62명을 해외에 파견하여 현장 연수를 받도록 했다.

ISSUE 13.

외래관광객 100만 명 돌파

1978년 11월 25일,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외래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음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역사의 새로운 기념비를 세웠다. 정부의 정책과 공사의 열정이 세운 값진 이정표로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관광한국의 모습을 보여준 일이자 우리나라도 관광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시한 일이었다.

▲ 100만 번째 입국자 바바라 존슨 여사(1978. 11. 25)

▲ 외래객 100만 명 입국 돌파 기념행사(1978. 11. 25)

관광선진국을 향한 잠재력과 가능성 – 외래객 100만 명 시대로

100만 번째 입국자 바바라 존슨 여사(1978. 11. 25)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공사의 적극적인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수행을 밑거름으로 한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1975년 하반기부터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외래객의 입국이 증가하기 시작해 1976년에는 전년대비 31.8%가 증가한 83만 4239명에 달했다. 정부가 1977년 외래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삼은 것이 바로 이때였다. 이에 앞서 공사는 1977년 경영목표를 '외래객 100만 명 유치로 세계 속의 한국 관광 위상 정립'으로 정하고 외래객 100만 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외래객 100만 명 유치의 기록은 쉽게 달성되지 않았다. 1977년 일본인 입국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방한 외래객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94만 9666명에 머물렀다.

1978년 정부는 방한 외래객 110만 명 유치, 외화 수입 4억 5,000만 달러를 목표로 삼아 전년도에 제기된 항공 좌석 및 호텔 객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공사도 외래객 100만 명 유치 조기 달성을 위해 외국 언론인 272명, 여행업자 48명, 유관인사 38명을 초청하였으며, 102회에 걸친 해외광고 실시, 12회의 관광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호텔예약통제실을 설치·운영하여 부족한 호텔 객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1978년 11월 25일은 우리나라 관광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마침내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외래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공사의 열정이 세운 값진 이정표였다. 외래객 100만 명 유치는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관광한국의 모습을 보여준 일이자 우리나라도 관광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시한 일이었다. 또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기록이었다.